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한-영 공동 연구 사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영국 사례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들어가며	5
I. 양국의 문화예술교육, 교류를 통한 연구의 시작	6
II. 한국과 영국의 지금, 문화예술교육	11
 Chapter 1 영국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적 분석	23
Chapter 2 예술을 예술의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29
Chapter 3 확장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37
Chapter 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는 누구일까	55
Chapter 5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학교	67
Chapter 6 예술기반 커리큘럼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의미	81
Chapter 7 명료한 언어, 어젠다의 미덕	87
Chapter 8 문화예술교육 평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93
 나가며	107
 [부록]	115
5월 라운드테이블 현장	116
11월 라운드테이블 현장	122
주요 관련 기관, 단체	131
참여 전문가 소개	140

들어가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책연구팀

I. 양국의 문화예술교육, 교류를 통한 연구의 시작

- 본 보고서는 ‘2017-18 영 상호교류의 해((한국) 2017.2~2018.3/(영국) 2017.6~2018.7)’를 맞이하여 한국과 영국 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들 간 교류(라운드테이블 논의)를 통해 양 국의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임.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이하 영국문화원)과 RSA(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 왕실예술협회, 이하 RSA)¹⁾는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영국과 한국의 문화예술교육(UK-Korea cultural learning)을 특징짓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교류를 제안함. 이에 RSA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7년, 양 국가 간의 교환 방문을 통한 전문가 교류 연구를 시행하였음. 이는 RSA와 영국문화원의 ‘동아시아의 문화학습과 창의교육 프로젝트’²⁾의 일환이기도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RSA와 영국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탐방하며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양국이 고민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별 토론회를 통해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유용한 연구 자료를 만들어보기로 함.
- 본 교류 연구의 중점범위를 ① 공교육의 맥락에서 ② 5-18세 학생을 대상으로 ③ 학교, 문화예술 단체의 파트너십이 시행되는 범위로 설정함. 내용적으로는 교과교육과정 또는 교과 외 과정, 학교 내외의 문화예술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며, 창의력을 가르치기 위해 ‘예술에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1) RSA : 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의 약자로 1754년 설립된 런던 기반의 영국 학문간 융합 연구기관. (홈페이지 <https://www.thersa.org/>)

2) RSA와 영국문화원은 영국과 한국의 문화 학습(Korean cultural learning) 정책 입안자, 실무자 및 학교 지도자와 함께 양국의 예술 및 문화 교육을 특징짓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조사하자 함. 본 연구는 예술, 문화, 영어, 과학, 교육 및 혁신을 통해 영국과 한국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영국문화원의 연간 문화 축제인 ‘UK / Korea Creative Futures’의 일환으로 시행됨. 영국과 한국 대표단의 면담, 일련의 라운드테이블, 학교 및 문화 기관 방문의 상호 활동을 통해 양국의 문화 학습(cultural learning)을 활성화 및 제한하는 여러 작용을 보고자하며, 영국과 한국이 각각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Cultural learning) 활동'을 조사하고 논의하는데 관심을 두고자 하였음.

- 교류의 일환으로 2017년 5월에는 영국의 정책관계자, 실무자(실행가)들이 한국(서울)에 방문하였고 2017년 11월에는 한국의 정책관계자, 실무자(실행가)들이 영국을 방문하여 양 국 전문가들 간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진행함. 이 방문에 참여한 전문가들³⁾은 양국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연구 및 현장 관계자들로 구성됨.

- 5월 라운드테이블(2017년 5월 22일~27일, 영국 전문가들의 서울 방문) : 라운드테이블 논의,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방문,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국제심포지움 참석

- 11월 라운드테이블(2017년 11월 26일~12월 3일, 한국 전문가들의 런던·스코틀랜드·폴리머스 방문) : 라운드테이블 논의,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방문

- 영국의 'Cultural learning', 'Cultural Education'은 문화에 대한, 문화를 통한 적극적인 학습의 과정을 일컫는 말로서, 다양한 예술분야에 대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이것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관습을 이해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영국도 'Arts Education', 즉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지만 각 시기별 정책이 강조하는 방향에 따라 2010년까지는 예술교육보다는 창의교육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현재는 문화교육, 문화학습(Cultural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Cultural learning 개념에서의 '문화'가 예술적 경험, 예술에 대한 감수성의 제고를 중요 가치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임⁴⁾. 이를 통해 문화학습이 보다 탁월한 예술적 성취, 예술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점은 한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속성,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3) 양 국의 참여 전문가단 소개는 [부록] 참여전문가 소개 참고

4) 2008~2009년을 전후하여 영국 문화예술교육의 지형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creative learning과 문화예술의 본질을 중요시하여 예술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삼는 cultural learning, 두 갈래로 양분되는 향상을 보인다고 설명함(Neelands and Choe 2010:298)

“오랜 기간 동안 수준 높은 교육을 시행하는 한국은 점차적으로 ‘창의 및 문화 학습(creative and cultural learning)’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높은 성과를 내야하는 책임이 정부 정책의 지배적 기조를 보이며, 예술이 점차 소외되고 있는 영국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문화 학습(cultural learning)에 대한 한국에서의 경험이 영국의 어젠다에 보다 확실하게 적용하기 위한 교훈으로 적용되었을까?”

- Mark Londesborough, RSA

- 위 글은 본 교류 연구의 영국 활동을 주도한 RSA의 창의학습부문 부총괄인 마크 론데스버러(Mark Londesborough)가 2017년 5월, 한국(서울)을 방문한 후 쓴 칼럼의 서문임(RSA 홈페이지에 기재(2017.8.22)⁵⁾). 마크의 글을 통해 본 연구의 배경을 엿볼 수가 있는데, 각 나라에 대한 방문을 통한 논의와 교류가 서로에게 어떤 시사점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열린 결말을 두고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한국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문화정책의 하나로써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제도를 수립하고 정책사업을 펼쳐왔고, 영국의 경우에는 지난 수백 년간의 예술정책과 20여년이 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실행해왔다는 점에서, 양국은 역사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실제적인 차이가 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이전에 비해 점차적으로 예술교육에의 투자 및 관심이 감소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은 한국의 정부 주도적 모델이 지니고 있는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파악에 관심을 가지게 함과 더불어 이러한 모델이 현재 영국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니즈와 기회에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함. 또한 한국의 경우에도 영국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추진사례를 통해서 학교의 예술 교과과정이나 그간 추진해왔던 예술강사의 학교 파견 방식의 지원사업 외에 학교 밖의 여러 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이에, 양국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학교 정규과정의 예술교과 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의 전체적인 부분에

5) 관련 페이지

:<https://www.thersa.org/discover/publications-and-articles/rsa-blogs/2017/08/british-council-korea-visit>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논의를 이어나감. 영국은 현장에서의 아이디어가 많고, 어떻게 예술을 교육에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하나의 어젠다를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비해 한국, 특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안팎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문화부와 교육부 등의 다양한 부처, 관계자의 협업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 측면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다각적인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따라 2017년 5월 서울에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논의에서는 두 나라의 다른 상황에 대해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의 성공 사례를 나누며, 또한 극복해야 하는 도전과제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 서울에서의 논의를 통해 양국의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와 실행가들은 표준화된 중앙 지원 모델이 갖는 성과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는 드러나는 한계점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으로의 접근 방식과 논리적 근거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고 ‘양국의 다양한 교육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준 높고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도출해냄. 또한 향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에 대해 사전에 유의해야 할 부분, 보다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하는 지점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을 아래와 같은 도전 과제로 발전시켰음.

- **신뢰 관계(partnership, trust)** : 정부기관과 예술가, 학교 및 지역 기관 등 실행자 간의 관계를 다양한 창구를 통한 소통증진을 통해 신뢰를 쌓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진정한 예술적 실천(authentic practice)** : 진정성은 문화예술교육의 실행가가 진짜 예술가임을 보장하는 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이들과 함께하는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보다 실질적인 현실로 체험되고 각인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 녹아져야 함.
- **명료한 목표(clarification of goals)** :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 개발도 중요하겠으나, 목적 자체의 명료성·명확성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협력주체들이 그들 스스로 여기는 가치가 반드시 추구될 수 있어야 함.

- 2017년 11월 영국에서의 논의는 위의 세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한 사례를 탐구하면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특히 5월에 서울에 방문한 영국 전문가들의 활동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그 곳의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더해지면서 보다 풍부한 담론과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음. 양국은 이번 2017 전문가 교류 연구 활동을 통해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결과물을 내고, 향후 공동의 연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다음 장부터는 한국과 영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번 교류 연구 활동을 통해 관찰한 사례, 논의 내용, 그리고 각각의 시사점에 대한 부분을 풀고자 함. 특히 영국에서의 논의는 문화예술교육이 실천되는 현장을 위해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영감을 제공했기에 본 결과의 내용이 기존 해외사례를 일방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정도가 아닌, 양국 전문가의 상호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연구로서의 과정, 이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질적 제고의 과정으로서의 흥미로운 내용을 담으며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한편, 본 보고서는 한-영 교류 연구에 참여한 한국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을 통한 논의 결과만을 토대로 정리되었기에, 한국과 영국의 전체 상황 및 포괄적인 정책적 이슈 등을 모두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각 챕터의 내용은 특정 사례, 혹은 특정 경험에 의거하여 정리된 논의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참여 연구진으로의 관점과 철학에 담긴 제언과 결론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각각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례 분석, 현장의 경험보다는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방안에 영향을 미쳐 온, 혹은 앞으로 미칠 핵심적인 논제들과 담론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챕터마다 등장하는 사례는 실제 연구진의 방문 경험에 의거한 부분으로서, 주요 논제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미리 밝힘.

II. 한국과 영국의 지금, 문화예술교육

“한국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는 내용과 창의성(예술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 모든 창의성(예술성)과 엄청난 양의 모델과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 Sean Gregory, 바비칸 센터 문화예술교육 총괄

1.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의 예술교육,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 이외 문화예술교육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음. 영국은 아동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화적 권리’를 내세우며 학교 교과과정 이외에도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문화적 권리를 실제로 경험해보는 단순한 활동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예술을 교과과정 내에 있는 학습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특징적임.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Creative Partnership⁶⁾(이하 CP)’를 시작하게 되고, 예술가들이 학교로 들어가 여러 교육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학교 내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에 이르며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음. 그러나 2011년, 경제적 위기 및 보수적 성향의 연합 정부의 집권에 따라 문화예술 영역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삭감 조치와 더불어 CP를 비롯한 여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대거 축소시키기에 이름.⁷⁾

6)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은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개발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이래 2011년까지 10여 년간 잉글랜드 지역 내 소외 계층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던 창의교육 프로그램임. 본 사업과 관련해서 총 2억7천6백만 파운드(한화 약 4천억)의 사업비를 교육부와 DCMS(문화미디어체육부)가 부담하였음. 이 사업은 학교에서 예술활동 시간을 확대할 뿐 아니라, 문화역사학자인 로버트 휴이슨(Robert Hewison)이 묘사한 ‘어린이와 학생들의 전반적인 지적 창의성’을 키워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도 추진되었음.(5월 한영 라운드테이블을 위한 RSA의 사전 자료에서 인용) CP는 단일 예술교육 기관으로서는 영국 문화정책 역사상 전무후무할 만큼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탄력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0년 경제 위기 타격을 위한 정부의 예산 정책에 따라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며 결국 2011년 폐지되기에 이름.

- 영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형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2012년 2월 영국문화 미디어체육부와 교육부의 의뢰로 <BBC Classic FM>의 디렉터 데런 헨리(Darren Henley)가 작성한 정책제안서 「영국의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은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24개의 안건⁸⁾을 제시함.
- 헨리의 정책제안서를 기점으로 향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이 예술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도 존재하였고 실제로 헨리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들이 실시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예술에 관심 있거나 재능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10년 이상 진보정권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받다가 2011년 이후 5년 이상 보수정권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경험하고 있음.

2 영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 영국의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함. 영국 교육정책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 각 지방 정부마다 커리큘럼과 학교 지원체계, 평가 및 학교의 의무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임.

※ 모든 학생들이 16세까지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유네스코 국제 표준교육분류법)의 level2(중등이상교육)를 마칠 권리가 있는 것은 동일하나, 서로 다른 커리큘럼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침이나 요구되는 학습 내용에 대한 차이가 존재

7) 현재는 영국 웨일즈 지역에 한하여 추진 중임. Lead Creative Schools 사업은 웨일즈 예술위원회와 웨일즈 교육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2년차 사업으로 300여개의 학교에서 Creative Partnerships 사업의 가치와 정신을 유지하며 진행하고 있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원하여 교내의 다양한 문제들(문화 및 산술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됨. 선발된 학교는 보통 2년간 1년 기준 5천-1만4천 파운드를 지원받아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진행하며,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 교육위원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학교가 어떻게 예술가나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함께 교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작업할 수 있는지를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함. 향후 5년 간 웨일즈 내 전체 학교의 1/3과 협력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5월 한영 라운드테이블 RSA 사전자료)

8) Darren Henly(2012) Cultural Education in England

- 문화예술교육이 제공하는 내용의 범위나 관점이 학교별로 다르고, 최근 잉글랜드의 정부지원을 받는 중·고등학교 중 더 이상 국가의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정책이 수립된 후 반 이상이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더욱 복잡해짐. 반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국가 교육과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통합적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정부 부처의 정책 추진, 커리큘럼, 예술가와 문화예술기관, 교사의 연수 참여 경험 등 매우 다양하게 추진됨.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함에 있어 어떤 것의 영향을 받는지, 혹은 정책의 영향은 어떤지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정책 수립의 한 맥락으로 문화가 교실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배울 것인지 등 보다 문화를 누릴 아동의 ‘권리’ 자체를 강조하는 차원의 정부발표 등을 참고할 수 있음. 2016년에 영국의 문화부는 포괄적 문화정책인 「문화백서(The Culture White Paper, 2016)」⁹⁾를 발간하였음. 이 문서에서는 ‘문화는 학교 안팎에서 모든 아동의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육당국은 이러한 정책을 학교의 의무사항으로 실행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음.

영국 문화부 ‘문화 백서(The Culture White Paper)’(2016)의 주요 내용

- ① 문화향유는 모두를 위한 것 (Everyone should enjoy the opportunities culture offers, no matter where they start in life)
 - 모든 어린이를 위한 학교 안/밖 교육에서 문화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
 - 기능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더 나은 접근법
 - 공공지원을 받는 문화는 국내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 ② 문화융성은 곧 지역사회와 성장 (The riches of our culture should benefit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 건강한 지역사회와 경제성장을 위한 문화의 역할
 - 국가적/지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
 - 역사적 유산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의 중요성

9)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10799/DCMS_Arts_and_Culture_White_Paper_Accessible_version.pdf

-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경험의 확장

③ 국제적 명성과 문화의 힘 (The power of culture can increase our international standing)

- 문화수출을 통한 국제적 평판과 소프트파워의 강화
- 브랜드 브리튼(brand Britain)의 대외적 홍보
-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의 강화

④ 문화투자, 탄력성 그리고 혁신(Culture investment, resilience and reform)

- 정부는 현재 성장 중인 문화섹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 정부는 문화기관 지원을 위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펀딩 모델을 개발·적용 한다.
- 정부는 본 백서에서 수립된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단체(public body)를 지원 한다.

○ 이에 앞서, 2013년 7월 교육부와 문화부는 「문화교육계획(Cultural Education Plan)」을 발표하였는데,¹⁰⁾ 이 계획에는 잉글랜드 내 학교와 문화연계에 대한 정부의 관여 및 개입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음. 그러나 이 역시 강제성보다 교사의 자율성을 독려하고 있음. 즉, 문화예술분야의 지역사회 파트너 등과 협업하여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초청'의 뉘앙스이며, 이와 관련한 예산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와는 차별되는 내용임.

- 학교와 문화예술기관 간의 관계는 일일 체험, 방문 프로그램, 예술가들이 커리큘럼의 일부 내용에 직접 관여하여 협력하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의 재량임.

○ 영국 내 각 지방정부(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교육과정은 각기 다르지만, 일치하는 점은 모두 동일하게 예술과목과 다른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지침들은 각 지역마다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추진되고 학교마다 다른 수준으로 교육과정의 의무사항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시사항으로만 존재함.

○ 2015년, 잉글랜드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전체 시간의 11%를 예술, 디자인, 드라마, 음악, 테크놀로지를 가르치는데 쓰고 있다고 밝힘¹¹⁾. 그러나 전반

10)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26569/Cultural-Education.pdf

11) DFE Schools Workforce in England, 2015,¹¹

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여러 교과목에 걸쳐 진행되고 정규교과 과정 외에서도 다루어지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 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소득이 낮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할수록 문화예술기관을 방문할 확률이 낮고, 예술을 접할 기회도 낮을 수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 문화 예술분야의 일자리, 인종적 다양성의 불균등 등을 해소할 메커니즘으로 ‘학교’를 꼽고 있음. 그러나 잉글랜드의 경우, 예술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와 실제 교육 시간이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문화예술교육의 학교 내의 중요도 수치는 감소하는 상황임.
- 현재 영국 내에서는 이러한 위기의식에서부터 문화예술교육이 현재의 11%의 문화예술 비중을 넘어서 전체 학습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 중임. 하지만 예술이 교과과정 내에 있는 모든 학습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며, 그러기 위한 접근 방식 또한 실행 측면에서의 정교하고 고도화된 작업을 요하게 됨. 현재 영국은 문화교육 정책이 아직은 예술이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생각의 단계를 넘어 실행을 위한 활발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여겨짐.

영국의 지역별 학교 예술교육 과정¹²⁾

영국 내 각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예술 교육과정은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지만, 해당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예술 교과 및 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대한 자체 규정을 수립해놓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각 지역별 규정은 전반적인 지시사항 정도로만 존재하며 개별 학교들은 교육과정의 의무사항을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음.

□ 잉글랜드

- 영국 전체의 80%를 약간 넘는 인구가 잉글랜드에 거주한다. 잉글랜드의 교과과정은 5-16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인간의 창의력과 성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을 따르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학교가 만약 국가교육과정을 거부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의 영적,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증진하는 폭넓고 균형 있는 교과과정’을 제공할 의무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교과과정은 잉글랜드 교과과정과 유사하게 구성됨.

- 14세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술과 디자인,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음악, 드라마, 춤 등을 배움. 음악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11세 까지는 일반 교사에게 배우다가 중등과정에서는 전문가 수업에 참여함(드라마의 경우 영어시간에, 춤은 체육시간에 포함되기도 함). 14-16세의 학생들은 1개의 예술과목(음악, 드라마, 춤, 예술과 디자인, 미디어 아트)과 ISCED 2단계에 해당하는 D&T(디자인과 테크놀로지)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학교 교육의 성과 측정을 소수의 핵심 과목에 집중하도록 점점 더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 예술교과의 축소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잉글랜드 정부는 2020년까지 16세 학생들의 90%가 ISCED 2단계에 준하는 시험인 EBacc(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혹은 지리)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예술분야 및 문화예술교육계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전문연구기관인 입소스 모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EBacc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입 이후 잉글랜드 내 27%의 학교가 교과과정을 줄였으며, 문화예술교육연합회(Cultural Learning Alliance, CLA)는 그 과정에서 예술과목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증명하기도 했음.

□ 스코틀랜드

- 2005년 도입된 스코틀랜드의 3-18세 청소년 대상 교육과정인 'Curriculum for Excellence'으로 인해 여러 문화예술기관이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었음. 'Curriculum for Excellence'의 목표는 4가지 역량, 즉 '성공적인 학습자(successful learners), 자신감있는 개인(confident individuals), 책임감있는 시민(responsible citizens), (사회에) 영향력을 지닌 공헌자(effective contributors)'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함.
- 이를 위한 교육으로서 외부로 표현되는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새로운 사고에 대하여 열린 자세(openness to new thinking)', '새로운 맥락에서의 비판적 사고 접목(applying critical thinking in new contexts)', '자기 평가(self-evaluation)', '교차교과 학습(cross-curricular work)'과 같은 창의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학교와 문화예술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있음. 이 교과과정은 일부 교사들의 부담스럽고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받아, 스코틀랜드 교육부와 Creative Scotland는 보다 단순명료한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음.

□ 웨일즈

- 웨일즈는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를 기반으로 아동 중심의 복유럽 유아교육 과정에 영감을 받은 '기초과정(The Foundation Phase)'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 내 7개의 필수 영역 중 하나로 '창의적 발달(Creative Development)'을 포함하고 있음. 7-16세를 위한 교육과정은 잉글랜드와 유사한 과목을 포함하며, 14세까지 '국가 문해교육 체계(National Literacy Framework)'에 따라 학업평가를 실시함. 두 과정 모두 현재 재검토 중이며, 16세를 대상으로 예술과목에 대한 ISCED 2등급 시험을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을 제안한 상황임. 웨일즈의 학생들은 'Skills Challenge Certificate'를 포함, 영어나 웨일즈어와 수학 및 3개의 과목

을 선택하는 웨일즈 대학입학시험(Welsh Baccalaureate)을 공부할 수 있음. 'Skills Challenge Certificate'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세계시민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 등 네 가지의 창의성과 관련한 과업들(creative tasks)을 수행해야 함.

□ 북아일랜드

- 북아일랜드의 교육과정은 4-16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와 경제와 환경에 기여하는 개인(individuals, contributors to society and contributors to the economy and environment)'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함. 잉글랜드의 과정에 비하여 창의성 분야에 대하여 더 많이 언급하고 있으나, 스코틀랜드와 비교했을 때 창의적 학습(creative learning)에 대한 강조는 덜한 편임. 초등교육의 교과 과정을 보면, 넓은 의미에서 '창의성(creativity)'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으며, 예술과 디자인, 음악과 드라마가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인' 예술적 재능과 학습의 형태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함. 11-14세 사이에는 이러한 '창의성'이 모든 영역에서의 학습의 결과로 기술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감독관은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지역 환경을 활용하는 데 얼마나 연관성이 있고 창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3.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교육기관이나 교육단체 및 예술교육자 등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정책이나 제도를 근거로 공공기관과 재단 등의 공공영역에서 이를 실행하면서 추진되어 왔다는 특성을 지님.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계획 및 사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음.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0년대 초기부터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주도하였고 교육부 외의 타 부처 및 유사기관, 지역재단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200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그 당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의 주요 구성 요소의 하나로 문화예술교육을 포함시킴. 이렇게 정책 관계자 사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

12) 5월 한.영 라운드테이블 RSA 사전 소개 자료를 재구성

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법령, 정책 추진 조직, 이를 위한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됨. 그 후,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인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인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이처럼 한국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한 모델임.
- 이렇듯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정부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며, 문화예술교육 예산만 보더라도 2005년 약 88억원의 예산에서 2016년 1천 3백억원으로, 연평균 27.7% 증가되었음. 그러나 그간의 정부 주도 문화예술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 지원의 한계성을 가지며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식의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으로 추진됨에 있어, 소외계층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두어 생애주기별 전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됨. 이와 함께 수혜대상의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에 따라 향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제고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반 확충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되고 있음
- 이에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지역과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 다양성 수용, 지역과의 협력 등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새롭게 잡고 변화와 혁신을 하고자 노력 중임.¹³⁾

13) 2018년 1월 11일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주요 전략도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로 설정되어 있음.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표 추이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11월)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문화관광부, 2007년 6월)
-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향」(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7월)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2월)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1월)

4. 한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필연적으로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함.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 공동 정책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교육 전체 체계 및 구조상의 큰 변화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¹⁴⁾
-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거나 관련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져 옴.
- 그간 추진해 온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줌으로써 문화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사업방향에서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교육청이 국고 및 지방교육재정 등의 예산을 매칭하여 운영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그 외에도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전교생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과 <고3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학교 밖의 활동을 지원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의

14) 2017년 기준,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군) 내 예술교과(음악/미술)의 비중은 초등학교 13~14%, 중학교 8%, 고등학교는 약 2.5~4.9%를 차지, 그 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적 문화예술활동으로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등이 운영됨(2017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오케스트라>,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 중임.¹⁵⁾

- 최근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확대해 가고 있음. 교육부는 <예술중점학교>, <학생 뮤지컬·오케스트라·연극회 지원사업>, <예술드림학교>, 악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 교육청에서도 각각 지역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대학입시라는 요인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은 음악, 미술을 제외하고는 정식 교과목에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 또한 부족한 상황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수학·영어·과학 등의 교과에 비해 예술교육은 양적 비중도 여전히 낮은 편이고, 학교 내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공감대 부족도 한 몫을 차지함. 한국에서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매우 높은 편이나, 대학 입시 및 진로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방식 측면에서도 1인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등 공간적 자원과 관련 인적·콘텐츠 자원과의 연계도 낮은 점 또한 교육방식의 다양성을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5. 양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딜레마

- 문화예술교육의 현재를 생각할 때 한국과 영국(특히 잉글랜드) 내 분위기에 있어, 양국이 문제라고 인식되는 원인이 다르더라도 현재 고민하는 접점은 비슷한 상황임. 양국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누구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음. 그리고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 정책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 무엇보다 영국은 예술이 학습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을 정책 입안자에게 설득시키고자 하는 상황에 있고, 한국은 좀

15) 각 사업의 세부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 참조

더 다양한 예술 활동이 학교와 연계될 필요성과 사회 전반의 예술이 좀 더 문화예술교육적 가치를 가지도록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즉, 사회 발전과 문화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 안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증진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양국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야 하며, 창의성(예술성)의 발현이 문화예술교육과 함께 이뤄질 수 있음에도 동의하였음.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안팎에서 얼마나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러기 위한 정책 입안자의 설득, 지역과 기관·단체와의 협력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끊임없이 필요함.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정책 실행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이에 대한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가 질적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Chapter 1

영국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적 분석

제한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의전담교수)

200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의 역사를 지닌 영국의 상황과 불과 최근 몇 십 년간 급진적인 성장을 거쳐 온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의 맥락과 상황은 당연히 다르다. 따라서 두 국가 간의 차이점을 단순히 병치하는 대신, 각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적 인재상과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이 장에서는, 이번 교류에서 확인된 영국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이는,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돕는 한편, 후에 전개 될 한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재고와 철학적 반성을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영국의 모든 문화예술교육기관의 전체 상황을 대변하거나 총괄하지 않으며, 이번 교류에서 진행된 내용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한점을 지닌다.

1.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구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기본적으로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더불어, 영국 정부의 예술교육에 대한 예산 삭감조치로 인해 2011년 이후로 정부주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쇠퇴하였음. 그러나 역설적으로 문화예술의 교육적 효용성을 지지하는 예술기관과 학교, 지역정부, 관계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치지향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특히 예술교육과 예술참여가 다음 세대의 창의력 향상에 핵심적이라는 사회적 합의 아래 아이들에게 ‘미래에 필요한 가치’를 재확인하며 진행되고 있기에, 각 기관별, 프로젝트의 어젠다와 목표가 분명하며, 각각이 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성이 동시대적 궤도에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예술 정책의 측면에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각 지방정부에 위임하는데다 학교간의 자율성이 커서 한국처럼 구조화된 목표나 성과의 통계적 산출은 어려움. 또한, 정부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기에, 문화예술 및 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실행 기관들(CLA¹⁶⁾, ACE¹⁷⁾, PHF¹⁸⁾ 등)은 각각의 방향성과 우선과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있어 개별적인 특징을 지님. 반면, 이런 합의되지 않은 방향성과 목표지향이 각각 기관의 특성을 선명하게 했으며, 스스로의 방향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지표가 구체적인. 즉, 각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세밀하고 세부적인 목표의 프로젝트와 연구를 토대로 진행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의 장점도 지니고 있음.
- 영국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인력개발이라는 교육의 미래적 효용성 뿐 아니라, 문화를 누릴 ‘아동의 권리’라는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즉, 문화예술교육이 미래인재의 필수 역량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를 확인하며, 변화와 평등의 파트너십을 배우는 필수 영역이라는 사회적 동의를 기반에 둬. 즉, ‘교육’

16) Cultural Learning Alliance의 약자. 예술, 문화, 창의교육, 청년 분야의 기관과 개인이 모인 연합체
홈페이지 <http://culturallearningalliance.org.uk/>

17) Arts council England의 약자로 1994년에 설립된 공공기관. 모든 영국인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홈페이지 <http://www.artscouncil.org.uk/>

18) PHF : Paul Hamlyn foundation의 약자. 1987년 설립된 재단.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극복을 도와 사람들이 잠재력 실현, 성취감, 창의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려 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홈페이지 <http://www.phf.org.uk/>

의 역할인 '차세대 인재육성'라는 미래형 과제 이외에도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의 예술교육을 고려함.¹⁹⁾

-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우선시 하지만, 영국의 기관들은 이를 확장시켜 평생교육의 범위로 가져가려는 노력이 선명함. 예컨대, RSA가 정의하는 창의학습자(Creative Learners)의 범위는 영아에서부터 노인까지임. 스코틀랜드 문화외교부 산하 문화예술, 창조산업 발전 지원 기구인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²⁰⁾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Time to Shine²¹⁾"의 대상 또한 0세에서 25세로 맞춰져 있음(0세부터로 잡은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이 평생학습이라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전 과정이 중요하기에 10대에 한정하는 것을 피함. 평생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지만, 교육과정상 대학을 졸업하는 즈음인 25세로 설정). 극장이나 워크숍 등도 학교에 우선권을 주지만, 학생이 아닌 참여자에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지는 않음.

II.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 학습”의 강조

- 영국문화예술교육 기관들은 그 다양한 목표와 설립취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로서 창의성(Creativity)의 개념을 핵심적으로 지향하고 있음. 교육과 공공 서비스로 사회를 혁신시키는데 주력하는 RSA의 경우, 불평등, 기술적 문제 등의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창의성 격차(creativity gap)'를 주요한 개념으로 설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RSA는 창의성을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제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회적 배경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창의성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해 옴. 그러나 한국과 영국에서 RSA를 만

19) 2013년 문화교육계획(Cultural Education Plan)「서문에는 '문화예술을 아동의 삶의 중심에 놓아두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교육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완성될 수 없고, 시작할 수 없다'라고 기술됨

20)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 홈페이지 <http://www.creativescotland.com/>

21) 청소년 예술 전략(Time to Shine) : 0~25세 젊은 세대가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단순한 예술경험의 차원을 넘어 예술 및 창의성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 안에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게끔 하는 전략

홈페이지
<http://www.creativescotland.com/what-we-do/major-projects/national-projects/national-youth-arts-strategy>

났을 때, '예술교육이 사회적 갈등이나 격차, 이슈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역할을 하였나.'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의 기회가 없었음. 이는 RSA의 최근 프로젝트들이 장기적 기간을 두고 진행되어,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과도 관련 있음. 하지만 창의성이 미래 세대의 삶과 문제해결능력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해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지역정부와 기관의 공통분모로 작용함은 분명함.²²⁾

- RSA의 대표 프로젝트인 Creative Learning 등의 명칭에도 드러나듯 문화예술교육이 가르침(Teaching)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배움(Learning)의 관점으로의 변화가 뚜렷함. 테이트 모던, 바비칸 센터 등 주요 예술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센터의 명칭에도 “Education” 대신 “Learning”이라는 표현이 들어감. 즉, 문화예술의 교육이 예술가나 기관이 “가르치는” 일방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배우는 입장에서의 소통형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이는 학생중심이라는 교육의 철학 뿐 아니라, 예술 교육 및 향유 자체가 관람형이나 기술 습득형에서 참여형태로 전환되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음.

III. 개인의 역량강화와 사회적 격차해소를 연결

- 영국은 예술교육의 역할, 예술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해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번 교류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사회 발전이나 시민 참여를 논의하는 모든 자리에 예술 분야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신념아래 문화예술교육이 교육의 부분이나 재능발굴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즉,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것이 예술가 등 개인적으로, 혹은 예술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본 교류연구에 참여한 각 기관의 리더들도 행정, 교육, 평가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목소리의 다양성을 보여준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에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수혜”

22)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가 창의력 교육의 강조를 위해 참조한 “세계 경제포럼”의 미래 직업에 필요한 상위 10가지 능력 리스트로, 이 리포트에 따르면 미래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창의성”은 최근 10위에서 3위에 오름(2015년/2020년 대비)

나 “복지”의 개념으로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다양성을 확보하고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차원의 접근을 보임.²³⁾ 즉,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를 가졌던 아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고양시켜, 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임. 영국의 오래된 문화예술의 역사를 고려해볼 때, 기본적으로 예술이 개인의 삶은 물론,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근본적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관점은 예술교육의 목표를 보다 풍성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해줌. 예컨대,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Time to Shine”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로, 교육을 통한 구체적 인재상이 아니라 예술과 창의성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접근이 인상적임. 또한 스코틀랜드의 교육목표 중 하나인 “책임감 있는 시민”은 예술과 교육의 접점을 제시하고 있음. 즉, 예술교육의 우선적 장점으로 꼽히는 창조성 외에도 적극적 사회 참여,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등 민주 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데 예술교육을 활용하고 있었음. 스코틀랜드는 예술과 창의적인 활동이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진행됨.²⁴⁾
- 영국의 경우에도, 한국과의 유사점은 보임.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창의학습 총괄인 조안 파르(Joan Parr)는 라운드테이블 논의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무분별한 경쟁, 학교의 시험 시스템”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또한 심화되는 사회적 불균형과 경제 양극화 해소에 대한 문제해결방식으로 교육의 문제를 꼽고 있는 것도 유사함. 그러나 높은 대학진학율(한국 68%, 영국 49%, 2017년 기준, 출처 KBS뉴스)과 과열된 사교육을 고려하면 한국 교육의 현재가 보다 더 경쟁적이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장에서의 필요성이나 인식 또한 모호한 상태임. 이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와도 관련 있는데, RSA가 지적하듯,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적 전략에 사용되는 언어를 학교교육의 목표로 삼지 않는 반면, 한국에는 기업이 원하는 역량강화 위주의 언어들이 교육의 목표로 설정됨. (다만 예외적으로 스코틀랜드는 인력개발의 요소를 강조하기는 함)

23) 예컨대 2013년~2015년 영국에서 시행된「문화예술교육계획(Arts and cultural education programme)」은 영국 내 모든 학생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시하는 한편, 소외계층 적극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24)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은 자기표현이 핵심임. 언어, 혹은, 움직임, 미디어연극을 통해서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예술활동으로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객관화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음.”(조안 파르,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창의학습 총괄)

Chapter 2

예술을 예술의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제한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의전담교수)

예술과 교육은 종종 모순적인 가치를 지향한다고 여겨졌다. 예술가의 도전정신, 무지에의 탐험, 실패의 위험성, 예측불가능성은 시스템으로서의 교육이 담기에는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그러나 지식과 앎, 노동의 체계가 재구성되어가는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예술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는 “창의적 사고”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떠올랐다. 가르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능력으로 여겨지는 창의성은 과연 가르쳐지고, 습득 가능한 기술일까? 혹은 특별히 설정된 환경에서 경험하고 자극받아 도출되는 내재적 능력일까? 이러한 물음들의 연장선에서 연구자, 전문가들은 창의성과 예술의 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장에서는 예술과 교육의 경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창의성 교육”의 과제를 다룬다.

1. 예술이 정말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 영국의 경우, 창의성과 예술과의 관계, 예술의 사회적 기여, 그리고 창의성을 어떻게 모든 세대에게 고양시킬 것인가를 두고 각 기관별 담론과 토론이 활성화되어 있음. 특히,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창의성” 등 역량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 개념을 개별 프로젝트의 목표 및 평가 기준에 적용시켜, 평가의 방법이 다양하고 실질적이며 구체화되어 있음.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는 예술이 오늘날의 학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예술은 창의적인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지식에 접근하는 대안적 방법들을 제안하며,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한편, 커뮤니티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²⁵⁾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교육은 철학적으로 정반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음. 영국의 대표적 현대 미술관인 테이트모던(Tate Modern)²⁶⁾의 러닝(Learning) 디렉터 안나 커틀러(Anna Cutler)는 토론 중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짐.

“예술과 학교교육은 기본적으로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예술가가 창의성, 의심, 잘 모르는 것, 동시대의 것, 새로운 아이디어, 탐험과 적용, 시도를 지향한다면, 교육은 그 반대의 것을 향한다. 우리는 이 두 개의 간극에서 어떤 접점을 만날 수 있을까?”

- 테이트 모던의 안나 커틀러(테이트 러닝 디렉터)

- 시스템으로서의 교육은 안나 커틀러가 말한 예술가가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안정성이나 확인된 것을 필요로 하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끈기와 상상력, 감정적 유대, 기술의 끊임없는 개발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 예술가가 공유하는 접점임. 또한 오늘날의 지식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적용과

25) 오직 예술만이, 우리의 공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우리의 땅이 지닌 겹겹의 아름다움, 우리 이야기의 풍성한 복합성, 그리고 핵심적인 21세기의 한가운데에서 곤란한 지경에 빠진 이 별을 위해 우리가 하고픈 기여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가능하다.” 도널드 스미스. 스코티시 스토리텔링 센터/「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10개년 전략보고서」중에서 발췌.

26) 테이트 모던(Tate Modern) : 국제 현대/동시대 미술을 선보이는 영국의 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tate.org.uk/visit/tate-modern>

탐험, 적응력이야말로 지식의 축적보다 더 절실한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근거가 됨.

- 2017년 11월 런던 테이트 익스체인지(Tate Exchange)²⁷⁾에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논의의 화두는 이것임.

“예술에서 진짜의, 진정한 학습(Authentic Learning)은 무엇인가?”

이 토론을 통해 예술교육 현장에서의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경험에 대한 고민을 마주할 수 있었음. 즉, 예술교육이 의미 있어야 하고, 진짜 세계를 반영하며, 진정한 삶의 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예술참여가 여가의 활용이나 판타지 세계로의 탈출 같은 부가적 활동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는 “필수불가결하며 인간다움을 완성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진정한 실천(Authentic practice)’은 무엇일까? RSA의 창의학습부문 부총괄인 마크는 ‘진정한 학습(Authentic Learning)’과 ‘진정한 예술적 과정(Authentic Artistic Process)’의 교집합이 진정한 실천이라고 설명함.

“진정한 학습은 학습자와 관련된, 진짜 세계의 문제들과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념과 관계성을 학생들이 탐험하고, 토론하고, 의미 있게 개념화하고 구상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술적 과정은 예술가가 어떻게, 왜 작품을 만들지 결정하고, 의미와 목적, 매개체를 선정할 자유를 갖고, 추상적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관찰자와의 대화를 목격하는 데서 일어난다.”

- 즉, 학습과 예술과정 모두 의미 있는 진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통찰, 판단과 선택의 자유와 과정이 강조됨. 이 관점에서는 창의적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적 결과물의 탄생(단순한 작품완성)보다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관점임.

27) 테이트 익스체인지(Tate Exchange) : 테이트 모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험적 공간으로써 예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
홈페이지 <http://www.tate.org.uk/visit/tate-modern/tate-exchange>

- 결국 예술가와 참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정한 실천(Authentic Practice)은 진정성 있는 학습과 진정한 예술적 과정의 중간, 그 교집합 속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음. 따라서 참여자(학습자)의 진정한 실천을 이끌어내는 예술가의 활동은 예술가로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될 것임. 예술가와 참여자의 만남이 예술 활동의 부가적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예술의 콘텐츠 자체, 또는 예술 언어라고 볼 수 있겠음.
- 한국에서는 창의성이 교육의 중요한 키워드임은 모두가 알지만, 이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혹은 예술교육을 통해 과연 “습득가능”한 능력인지에 대한 반성과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듯함. 또한 지금까지의 예술교육이 기술 습득 위주로 진행되어왔고, 대부분의 티칭 아티스트들도 도제식 예술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예술의 진정한 학습, 배움이 일어나고 예술적 과정을 경험하는 자체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이 펼쳐지는 모습도 낯설 수 있음. 특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체험(활동)”, “여가”, “작품(완성)”의 맥락에서 나열식 체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학습자의 진정한 학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함.

“우리는 예술가를 꿈꾸지 않는(혹은 꿈꾸는) 아이들을 어떻게 예술적인 방식으로 예술가처럼 사고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테이트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했고, 이에 대한 목표와 방법론의 구체화가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도출됨.

II. 예술 콘텐츠(Content)에서 콘텍스트(Context)로의 전환

- 영국의 대표적 현대 미술관인 테이트모던(Tate Modern)의 “Tate Exchange”는 갤러리 오픈 시간동안 한 층의 예술적 공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프로젝트로, 예술가가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작업과정이나 경력 등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과정이나 우선권이 없으며 관객 또한 사전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함. 이 열린 공간의 의미는 예술이 단순히 비간헐적 체험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제

작하고, 예술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과 맥락이 예술 활동의 일환임을 암시하고 있음.

“(이 열린 공간을 통해)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사회에서 예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다. 이를 위해 이 공간을 만들었다. 테이트 익스체인지지는 언제든지 대중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고, 예술가들의 작업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 매주 달라지는 전시, 아이디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 예술가와 대중이 함께 소통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 테이트 모던의 안나 커틀러(테이트 러닝 디렉터)

- 테이트 익스체인지지는 이 공간에 대한 명칭이자 이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인 ‘테이트 러닝’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세계적인 예술가, 그리고 예술계뿐만 아닌 많은 파트너(대학, 자선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와 관객을 연결하고 있음. 특히 예술이 무엇인지,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워크숍, 예술 활동, 토론 등을 다양하게 진행함.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활동 중 우리가 주목하는 핵심은 참여자 스스로의 “결정하기(Making a decision)”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그 순간의 활동이 아티스트의 예술 활동(작업, 프로젝트)을 완성함.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심지어 하차도 가능함. 또한 어떤 예술 프로젝트의 관객들은 자신이 참여한 예술 활동을 스스로 SNS나 인터넷, 편지 등에 공개하는데, 이러한 자발적 행위와 공유까지를 예술 프로젝트의 최종적 완성 순간으로 보기도 함. 즉, 예술경험이 미술관 밖을 넘어 참여자의 일상으로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참여형 프로젝트들은 동시대의 사회적 모습을 반영하는 컨템포러리 아트(contemporary arts)의 특징들을 나타내기도 함. 이미 기존에 완료되어 설정되어 있는 예술의 기능적 부분을 습득하는 예술체험이 아니라, 예술가가 추상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자체를 예술적 경험이자 작업의 완성으로 봄. 즉, 예술교육의 방법은 테크닉이나 스킬 같은 예술 활동의 방법론의 습득이 아니라, **예술가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창의력과 연결된다는 철학**임.

- 실제로 현장의 경험으로 볼 때, 예술교육에서는 예술가와 교육 콘텐츠를 분리하기가 매우 어려움. 즉, 소재를 사용하고 구현하는 스킬보다, 예술가와의 대화, 예술가의 미학적 사고가 들어간 제안, 피드백이 예술경험의 핵심적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음. 문화예술교육이 예술적 기술 향상이 아닌 예술적 경험을 통한 본인의 삶의 성찰, 예술적인 사고의 능력 함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스스로 결정하기”는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 있음.
- 영국의 문화예술기관에서 진행되는 예술참여의 방식을 볼 때, 예술가의 피드백이 참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상적임.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미학적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즉, 단순히 좋다, 예쁘다, 싫다 정도의 비판성적이고 감각적인 호오(好惡)의 반응에서 나아가, 대상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새로운 관점에서 토론함으로써, 미학적 반성과 자기객관화, 문제해결 능력 등이 발휘됨.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 감상, 이론 습득보다는 실제 활동(Practice)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분석과 관점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오히려 이론가들이 말하는 창의적인 관점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여짐.

Ⅲ. 티칭아티스트, 혹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 이번 한-영 교류에서는 티칭아티스트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짐. 중요한 것은 티칭아티스트가 아티스트 활동의 대안적 성취나 경제활동의 도구로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활동 중인 아티스트가 학습자를 만나 예술과정에 대한 공유와 경험이 일어나야한다는 점에 합의가 모아짐. 즉,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지,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뒀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고 그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기관과도 공유되어야 함.
- 정리해보면, 티칭 아티스트의 역할에서 강조되는 점은 참여자들의 기술습득이나 체험형 예술 활동보다도, 예술가처럼 생각하기임. 즉,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제

안하고, 이러한 안전한 실패와 도전의 과정을 리허설 해보는 것이라고 여겨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티칭 아티스트가 자신의 예술적 작업과정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고민할 필요 있음.

“(예술이)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 교사처럼 고정된 교과서를 가르치고, 판서를 하면서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사고의 경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아이들에게 선물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가) 먼저 자기의 예술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조안 파르(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창의학습 총괄)

- 다만 학교교육과 예술교육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재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음. 예컨대 “고대 로마”에 대해 배우는 동안 아이들은 로마의 의상, 무기, 동전, 건축 등 다양한 로마의 문화를 배우고, 토론하고, 그것을 만들고 전시하는 학습의 과정을 가짐. 즉, 지식의 습득이 단순한 팩트의 암기가 아니라, 토론과 사고, 체험과 재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복합적인 인지구조의 과정을 거쳐 가고 있었음.

- 이처럼 일반 교사들의 예술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기관들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자료제공, 워크숍 등을 진행함. 스코틀랜드의 국립 갤러리들은 교사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거나 신청자에게 무료 워크숍을 개최함. 예컨대, 스코틀랜드 국립 초상화 갤러리(Scottish National Portrait Gallery)에서 교사를 위해 만든 자료의 주제는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임. 국립 초상화 갤러리의 소장 작품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예술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리얼리티를 작품에 표현했는지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정체성과 취향에 대한 질문을 던짐 즉, 예술작품의 학습이 연대기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도구로 학습자의 개별적 생각, 관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정리하자면, 영국에서 강조하는 “창의성”은 예술의 기법, 스타일, 제작의 체험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문제해결과정을 리허설 하는 예술가의 작업방식에 더 주안점이 있음. 구분된 장르적 특징과 스타일을 강조하는(연극, 음악, 무용 등) 한국의 예술계/문화예술교육 필드에도 이러한 통합적이고 간학제적인 접근 방식이 더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기술의 습득이나 체험의 나열이라는 기존의 교육방식으로는 창의성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

Chapter 3

확장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황지영(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문화예술 뿐만 아닌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문화예술계 전반에서도 ‘보는 즐거움’에서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참여자의 니즈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기존 교육적 차원에서의 중점보다는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참여’에 대한 고민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며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념화 하고 이를 구체화 시키는 방식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진정한 참여의 의미,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적 플랫폼, 사회참여예술로의 문화예술교육 등에 대한 한국과 영국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통하여 확장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한 앞으로의 실행방향과 그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보는 즐거움’에서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전통적 기관’에서 ‘참여적 기관’²⁹⁾으로 역할 변모하고 있음.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참여’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음. 학습자의 ‘참여’를 전제로 실천하는 문화예술교육과 현 시대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참여’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시기임.
- 문화예술 교육의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확산되고, 국민의 문화생활(Cultural Life) 관점에서 문화향유 및 문화생활에 대한 니즈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되며 ‘보는 즐거움’에서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참여자의 니즈가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등 문화정책에서 공통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임. 문화향유 층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참여자의 욕구가 다 변화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개념과 논의는 더욱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는 즐거움’에서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변화하는 문화향유의 흐름을 반영하듯 문화예술 기관도 다양한 참여적 방식의 설계와 실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과거에는 예술교육분야는 교육적 차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참여’에 대한 고민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며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 개념화하는** 단계임. 이는 「한국·영국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논의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확장적 의미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음. 테이트미술관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구체적인 ‘참여적 실천 사례’가 발표되었음.
- 최근 많은 예술가들은 ‘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며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

29) 니나 사이먼(Nina Simon)은 『참여적 박물관(Participatory Museum)』의 저서에서 ‘왜 참여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관람객이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심, 관람자 중심 기관으로 변모를 위해 ‘참여적 설계’를 강조하며 ‘참여적 기관’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 참여를 위한 설계에서부터 참여적 실천 적용과 사례 분석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며 현대사회 ‘참여적 뮤지엄’으로서 역할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 있음. 문화예술 기관에서 해석되고 있는 ‘참여’의 의미와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참여’의 관계성을 되짚어 보고, 현대사회 뮤지엄과 문화공간에 종사하는 에듀케이터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 있음. (니나 사이먼(2010), 『참여적 박물관』, 연암서가, 참고)

통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이 반영된 작품은 대중을 문화예술과 더욱 적극적으로 만나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함.

II. ‘참여’와 ‘문화예술교육’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 뮤지엄³⁰⁾을 중심으로 ‘참여적 뮤지엄’이 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단순히 ‘참여’의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차원에서 ‘참여적 플랫폼’으로서 문화예술 기관의 역할과 실천 사례를 꾸준히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참여적 뮤지엄, 참여적 플랫폼 등 ‘참여’ 화두는 문화예술교육과 연결선 상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으로 문화예술기관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으로 해석될 수 있음. ‘참여’에 대한 논의는 결국 ‘문화예술교육의 확장된 실천 방법’에 대한 논의임.
- 전 세계적으로 문화기반시설 중 뮤지엄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임. 뮤지엄 분야 학자들은 1997년부터 ‘뉴 뮤지얼로지(New Museology; Pter Vergo)’적 접근으로 새로운 접근의 지식, 교육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하며 관람객 경험을 중요시했고, 2010년 이후 ‘참여적 뮤지엄(Participatory Museum; Nina Simon)’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상호작용, 창조적 플랫폼(Co-creating with Visitors)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³¹⁾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과 한국의 문화기반시설은 다양한 참여적 실천을 하고 있음. 영국의 테이트미술관 테이트 익스체인지(Tate Museum, Tate Exchange), 런던 국립극장의 백스테이지 워크웨이(National Theatre, Backstage walkway) 등은 대표적인 ‘참여적 플랫폼’으로서의 실천 사례로 볼 수 있음.

30) 본 글에서 뮤지엄(Museum)은 박물관·미술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고 있음

31)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체계화 연구』, 참고

■ 참여하는 즐거움,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참여적 플랫폼’ 사례

1. 런던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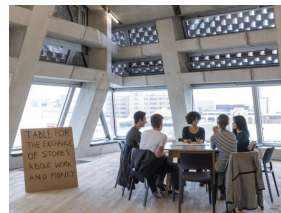
- ▶ 백스테이지 워크웨이(Backstage walkway): 극장 무대디자인, 설치팀 등 작업공간을 공개한 교육공간 기획 운영.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보다 극장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리더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육공간과 극장 공간을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누구나 방문하여 공연장 뒤의 공간, 직업현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함. 경험적, 참여적 공간이자 참여적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된 공간임.
- ▶ 영국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정규직 1,000명이 재직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고, 영국 내 극장의 롤모델이자 허브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
- ▶ 영국 내 지역 극장과 연계하여 아웃리치 교육 사업 적극적으로 운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같은 지원 중심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 내 다양한 규모의 극장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콘텐츠 중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런던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백스테이지 워크웨이(Backstage walkway)

2. 런던 테이트미술관(Tate Museum) 테이트 익스체인지(Tate Exchange)³²⁾

- ▶ 관람객 모두가 예술을 통해 협업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일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공간임. 작년 9월에 오픈되었으며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간. 매주 달라지는 아이디어와 시나리오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활용됨.
- ▶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고 ‘탐구’하는 공간임.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 보통 1시간, 최대 6시간을 사용하기도 함, 매년 테마가 달라짐.
- ▶ 전 세계 예술가와 다양한 영역의 50여 명의 파트너들이 연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함께 기획함. 예술에 대한 이해와 예술의 가능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운영함.
- ▶ 토크 프로그램, 세미나 등 예술을 통해 새로움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에서 ‘참여적 플랫폼’의 대표 사례로 손꼽힐 수 있음.



런던 테이트미술관(Tate Museum) 테이트익스체인지(Tate Exchange)

- 문화예술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수용하고 ‘소비자’가 아닌 ‘주체적인 참여자’로 참여자를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참여적 플랫폼 설계’가 중요함.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참여’의 형태와 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겠지만 ‘참여적 플랫폼’으로서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와의 연관성, 지속성을 담보하는가 질문을 던지는 것 중요함.
- ‘플랫폼³³⁾’이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며, 현재까지도 진화·발전하는

32) 일부 사진 출처, <http://www.tate.org.uk/>

33) ‘플랫폼’이란 용어는 16세기에 생성된 이후 일상생활이나 예술,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 사용해 왔음(Baldwin & Woodard, 2009). 그러던 플랫폼이 오늘날에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널리 사용됨. 그런 연유에서인지 플랫폼에 대한 내용과 정의도 다양함. 예를 들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구조, 상품 거래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반복 작업의 주 공간 또는 구조물, 정치·사회·문화적 합의나 규칙 등을 말

개념이며, 플랫폼은 기관·공간만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획자와 참여자(학습자)가 만나는 유형·무형의 구조물이자 생태계를 뜻함. ‘참여적 플랫폼’이란 플랫폼의 기본 개념과 의미에 참여자(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적 설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담긴 플랫폼**을 말함.

- 최근 문화예술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참여자 주도의 참여적 플랫폼의 구조를 만들고,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있음(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콘텐츠와 참여방식을 결정하는 형태의 프로젝트). 보고 즐기는 소극적 방식의 문화향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짓고, 적극적 관계맺기 방식의 문화향유를 즐기며 따라**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의 강화로서 ‘**참여적 플랫폼**’의 접근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특히 문화기반시설³⁴⁾은 참여적 플랫폼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임.

Ⅲ. 참여적 플랫폼에 대하여

-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문화예술의 현상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볼 수 있어야함.
- 예술적 행위로서, 예술가의 ‘참여적 플랫폼’ 설계를 통한 학생, 교사, 학교단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유도가 필요함
- 미술관 등 문화공간이 아닌 ‘학교’, ‘지역 사회 커뮤니티’에서 ‘참여적 플랫폼’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³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필요함. 지속적인 커리큘럼, 학교 안팎의 사회적 인프라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참여적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내외부 관계자와 긴밀하고 고도화된 연결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허브역할을 하는 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등)의 콘텐츠와 네트워크 중심의 고도화된 지원이 요구됨³⁵⁾.

함(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백과 /노규성(2014),『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참고)

34) 최혜경(2017),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현대 미술관」, art365웹진 해외리포트, [참고](http://www.art365.kr/?p=5967)
필자는 참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미술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흐름 속에서 문화기반시설과 미술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미술관교육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http://www.art365.kr/?p=5967>

- 비단, 문화기반시설·문화공간이 아니라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참여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함. 지원사업의 구조 속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플랫폼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 시기임. 영국의 경우 문화예술 기관 현장에서 보다 융통성 있고 예술가 중심의 참여적 플랫폼 설계를 통해 확장적 의미의 예술교육 실천되고 있음.
-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중 ‘참여자 주도형으로 설계된 사업’과 ‘참여적 플랫폼을 지향하는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향후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넘어서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과 생태계와 연계성에 중점을 둔 사업 설계가 필요함.
- 영국의 테이트미술관 사례에서도 ‘참여’를 중요한 화두로 제시하며 참여적 실천 사례에 대하여 테이트미술관 선임강사인 클레어 투메이(Clare Twomey)가 참여적 실천(Participatory practice)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함. 그녀는 문화예술기관 내에서 ‘참여적 실천 사례’란 콘텐츠와 콘텍스트, 큐레이터와의 관계성이 모두 포함된 프로젝트라고 말함. ‘참여’가 프로젝트 자체 내에 언어가 되고 콘텐츠가 되는 사례이자 ‘참여 프로젝트’로서 관람객, 참여자와 기관의 회귀한 경험을 강조하며 본인이 기획한 ‘참여적 플랫폼’으로 설계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함.

35) 지역커뮤니티와 학교 연결 프로젝트, 지역별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운영의 차원에서 장학사, 교사, 예술강사, 문화기반시설 교육담당자 등 세밀하고 견고한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 고안이 필요함. 이러한 지원은 자발적인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나, 정부 주도의 국내 문화예술교육 환경에서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의 역할 매우 중요함

■ 참여적 플랫폼 기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³⁶⁾

1. 파운딩 뮤지엄 사례 (Foundling Museum)

▶ 주제 : Exchange Project³⁷⁾

▶ 일시/장소 : 2013.6.14.-2013.9.15./런던 파운딩뮤지엄(Foundling Museum, London)



- 기획자인 클레어 투메이는 1,000개가 넘는 컵과 접시 위에 '사회'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행동을 새겨 넣은 프로젝트를 진행함. 영국 최초의 어린이 자선 단체이자 영국 최초의 공공 미술관 인 Foundling Hospital의 핵심인 교환 및 자선 활동에서 영감을 얻은 프로젝트임. 파운들링 병원이 저장소가 되어서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공간구성한 프로젝트임.
- 1,700년도에 호스피탈은 치료보다는 케어의 의미로서 버려진 아이를 돌보는 곳이었음. 아이는 호스피탈에 보내짐으로서 보다 적절한 생활, 의료, 음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 본인의 삶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맡겨지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은 상황으로 보여 지는 경향도 있었음.
- 나중에 아이를 찾을 수 있게 글을 쓰지 못하는 엄마가참(charm)'을 아이에게 주는 경우가 있었음. 방문객들이 이들의 관계와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하였고 클레어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컵과 컵받침을 제작, 전사하였음.(컵과 컵받침은 따로 사용해도 되지만,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음). 과거를 현대적으로 생각하며 컵 아래에 사회에 대한 메시지 또는 바람이 적혀있음(예사: 어떤 분에게 책을 크게 읽어주는 것, 엄마를 위해 집 청소를 하는 것 등 이뤄낼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음).

36) 테이트미술관 선임강사인 클레어 투메이의 발표내용 재구성. 사진 출처 및 내용 참고, <http://www.claretwomey.com/>

37) 파운들링 뮤지엄 익스체인지 프로젝트 관련 페이지
<https://foundlingmuseum.org.uk/events/clare-twomey-exchange/>

- **프로그램 내용** : 방문객들에게 컵 위에 손을 올리고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며, 고른 후에 그 컵의 메시지를 실행할 수 있으면 가져가도록함(방문객이 그 컵을 손위에 올리는 순간이 예술적인 경험의 순간이라고 표현함. 작품이 3개월 간 계속 되면서 컵이 없어지면서 실행됨). 방문객들이 Foundling Museum 홈페이지에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선행 완수의 결과과정을 탑재하도록 유도함.³⁸⁾
- **시사점** : 방문객의 호응이 컸고 이후에 실행한 사례들을 미술관에 알려줌. 실행 외에 더 많은 것을 하기도 했으며, 컵 위에 손을 올렸을 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찰나의 순간과 그 이후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게 됨. 이 프로젝트 내에서 진정성(authenticity)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는 클레어보다는 그 컵을 가져가던 그 '순간'을 경험한 '방문객'에게 있음.

2. 인류는 우리의 손 안에 있다(Humanity Is In Our Hands)

- ▶ 주제 : 홀로 코스트 기념일의 신탁(Holocaust Memorial Day Trust)
- ▶ 일시/장소 : 2015.1.27.-2016.1.27./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 **추진배경**: 기획자인 클레이 투메이는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웨스트민스터 다리에 전달 된 초대장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생각을 하게함. 2016년에 이 생각들은 웨스트민스터 다리의 대중에게 홀로코스트기념관에서 주어진 '손으로 만든 도자기 숟가락'을 통해 질문하고 묻고 있음. '인간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프로젝트는 보스니아 전쟁 중 악명 높은 Omarska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니사드(Nisad 'Šiško' Jakupović)와의 만남에 영향을 받은 프로젝트임. 니사드는 학교 친구들이 압제자가 되어 커뮤니

38) 관련 페이지 <http://exchangegooddeeds-blog.tumblr.com/>

티가 서로 서로를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경험했음. 도자기 손가락이라는 오브제 이자 작품인 '선물'은 '깨지기 쉬운 선물'이며 보살핌이 필요함.

-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재단에서 추진되며 홀로코스트 기념일에 참여하게 된 사례임. **예술적 공간에서 역사와 연계된 의미 있는 프로젝트.** 홀로코스트와 관련하여 크게 알려진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니사드를 통한 우리 삶 속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젝트임.
- 니사드는 홀로코스트 경험 당시의 나이가 기획자인 클레어와 나이가 비슷해서 세대로서는 이방인이 아니며, 현재 런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음. 니사드는 우리의 이웃 이자 친구인 점을 강조함.
- **기획단계:** 인류는 우리 손 안에 있다(humanity is in our hands) 프로젝트는 니사드의 집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했으며, 서로 모른다는 점, 각자의 역사가 다른 점 등이 우려되었지만, 얘기를 나누면서 이 우려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과정이었음. 대화를 통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왜 클레어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동의했는지를 물어보자 니사드는 내 자녀들에게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외부인과의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말함.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5년에 추진함.
- **프로그램 내용:**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데이에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일반인들에게 초대장(질문지)을 나눠줌. 다양한 직업과 나이,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이어주는 '다리'위에서 질문지를 배포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 질문을 던짐. 사전에 배포한 질문지 2,000개에 적힌 "어떤 것이 인간다운 모습인가?"에 대한 참여자들이 적어 준 '메시지'를 '손가락'에 넣어서 그 다음해에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그 순간이 곧 예술적 경험이라고 보는 프로젝트임.
- **시사점:** 홀로코스트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역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개개인의 삶과 연결 짓고, 그들이 생각하는 인류에 대한 메시지를 서로 교류하는 프로젝트임. 강연자가 있고 참여자가 있는 전통적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참여자 간에 서로의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던지고, 질문하는 방식. 참여자가 "어떤 것이 인간다운 메시지인가?"라는 질문이 담긴 질문지, 참여자의 메시지가 기록된 도자기로 만들어진 손가락을 받고 자신의 삶과 연결 짓는 그 순간 자체를 문화예술교육적 경험이라고 간주함. 이러한 경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와의 "참여" 방식, 경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바탕이 된 프로젝트임. 진행과정 자체가 참여적 플랫폼이라고 간주되며, 참여가 핵심 키워드인 사례임. 참여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회 참여 예술로서 분석될 수 있음.

IV. 사회 참여 예술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한국·영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실천³⁹⁾’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함. RSA의 마크 론데스버러(Mark Lonsborough), 테이트미술관 러닝 디렉터(Director of Learning)인 안나 커틀러(Anna Cutler), 테이트미술관의 선임강사인 클레어 투메이(Clare Twomey)의 발표에서 **모두 문화예술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예술과 대중의 사회적 맥락에서 소통을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예술가의 역할과 “진정한 예술적 과정(Authentic artistic processes)⁴⁰⁾”**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며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 예술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한 사례를 발표함.
- 그 과정에서 예술가, 예술가의 작업·작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사회 참여 예술’을 실천하고, 개인·우리·사회가 예술과 소통하는 ‘참여적 과정’의 설계, 그 자체가 작품이 되고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되는 과정을 주목하고 있음. ‘**사회 참여 예술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고려함과 동시에 전략·기획·운영적 측면에서 ‘**참여적 플랫폼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테이트미술관 워크숍에서 발표된 사례는 이 두 가지 화두를 모두 다루고 있었음.
- 모든 예술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유발하는데, ‘사회 참여 예술’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임. 즉 작품을 만드는 행위 그 자체가 사회적이고, 일반적으로 ‘사회 참여 예술’의 특징은 소극적인 수용을 뛰어넘어서 역할을 맡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결정된다는 파블로 엘게라(2011)의 사회 참여 예술에 대한 정의⁴¹⁾와 연결되고 있음. 테이트미술관은 문화예술교육을 확장적 의미에서 바라보며 사회 참여 예술적 관점에서 실천하고 있음.
- 테이트 미술관은 관람객과 예술이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 테이트 익스체인지

39) 영국 테이트미술관에서 추진된 워크숍(2017.11.28.)에서는 <해결책 강구-진정한 실천방법(Making Solutions-authentic practice)>을 주제로 창의적 학습을 위한 진정한 실천과 창조적인 조건들(Presentation : Authentic practice and creating conditions for creative learning)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짐

40) RSA의 마크 론데스버러(Mark Lonsborough)는 <진정한 예술적 과정 Authentic artistic processes>을 The artist decides on how and why they will create their work: freedom to select the medium and the meaning/purpose: making the abstract manifest; observed in dialogue with the observer라고 설명하며 테이트미술관의 사례를 소개함

41) 파블로 엘게라(2011), 『사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열린책들, 참고

(Tate Exchange)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리드 예술강사인 클레어 투메이(Clare Twomey)의 ‘참여적 실천 사례(Participatory Practice)’로서, <프로덕션(PRODUCTION)> 프로젝트를 소개함. 예술가, 예술작품 그 자체를 경험함으로써 발현되는 사회 참여 예술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사례임.

- 사회 참여 예술의 방점은 프로젝트의 효과가 일시적 재현을 넘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관람객의 참여를 위한 플랫폼이나 네트워크가 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음. 전방위적인 참여와 확장성, 공공영역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 공공장소에서,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나타냄.⁴²⁾ 클레어 투메이는 사회 참여 예술로서 예술교육을 해석하고 있었으며, 예술적인 프로세스, 추상적인 아이디어, 대화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함.

42) 파블로 엘게라(2011), 『사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열린책들, 참고

■ 사회 참여 예술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사례 : 테이트미술관 참여적 실천⁴³⁾



런던 테이트미술관 워크숍(Tate Exchange/participatory Practice 'PRODUCTION')

1. 테이트 미술관, 테이트익스체인지(Tate Exchange) 사례

- ▶ 주제 : <PRODUCTION : the seen and the unseen>
- ▶ 발표자 : 테이트미술관 러닝 디렉터 안나커틀러(Anna Cutler), 선임강사 클레어 투메이(Clare Twomey)
- ▶ 일시/장소 : 테이트미술관 테이트 익스체인지, 2017.11.28.

- **추진방향:**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예술작품에 참여하는 사례로서 프로덕션의 가장 큰 단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PRODUCTION : the seen and the unseen)' 임. 레이스를 만들어서 이 문장을 넣었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공간에 일하는 곳과 일을 하지 않는 곳을 만들고 전자인 프로덕션 공간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으므로 과정 중에 사람들의 참여로 프로젝트가 진행됨. 두개 주간으로 이루어져 진행함.
- **첫 번째 주간 프로그램:** 첫 번째 주간에는 프로덕션 시작과 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됨. 참여자들이 공장라인으로 생산할 때 어떤 공장이든 부품별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참여자들 간 공간에서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공간을 구성함. 컵을 몰드에 넣어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과정에 참여시킴. 조형 물을 만들 때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프로덕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세라믹 작업을 한 전문가를 섭외하고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 때 만드는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것처럼 본인이 만든 작품은 가져갈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은 급여처럼 가져갈 수 있음.
- **두 번째 주간 프로그램:** 두 번째 주간에는 사람이 없는 공장, 소리를 들으며 글씨를

43) 일부 사진 및 내용 참고, http://www.claretwomey.com/projects_-_exchange.html,
<https://www.ceramicreview.com/clare-twomey>

쓰는 활동을 함. 그 작업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듣고 쓴 것을 바탕으로 6월에 또 다른 작업을 추진함. 글 작업을 통해 새로운 소재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참여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됨으로서 이를 통해 이후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됨. 관계자와 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함. 두 번째 주간 프로그램은 길고 감정적인 여행이며,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믿음과 대화를 하게 되게 하는 과정.

- **시사점:** 발표 시작 전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테이트미술관 테이트익스 체인지의 설립배경과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함. 그리고 참여적 실천 사례가 가지는 의미와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을 통해 예술가 프로세스, 참여자와 만남의 과정 그 자체에서 발현되는 경험을 강조하였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참여'에 대한 질문을 던짐. 전통적인 방식의 미술관교육이 아닌, 변모하고 있는 현대사회 미술관교육의 확장된 실천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워크숍이었음. 클레이 투메이의 참여적 실천 사례는 그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국내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확장된 의미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와 사례분석이 필요함.

- 사회 참여 예술은 사회에 대한 질문과 이야기를 던지는 콘텐츠를 담고 있음. 우리 삶과 연결 지어 사회 안에서 예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핵심이며, 그 콘텐츠는 복제되거나 재현하는 방식, 인위적인 참여자의 의도, 의견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의 본질적 물음과 예술가의 생각, 행위,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참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이며 그 자체가 곧 교육임.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확장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한국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원구조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분야와 대상이 범주화된 국내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됨.
-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미술관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참여적 예술, 참여적 플랫폼 설계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확장적 의미의 문화예술교육 실천’과 ‘참여적 미술관’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과 예술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함.

■ 박혜민 작가의 커뮤니티 기반 ‘참여적 플랫폼’ 기반 프로젝트⁴⁴⁾

- ▶ 박혜민 작가는 세발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며 시민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사연이 담긴 물건을 사는 <이야기 만물상>과 특정 그룹의 참여자들과 여러 번의 워크숍을 통해 그들이 살고 싶은 가상의 국가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보통의 국가들> 작업, 지역 주민과 음식을 통해 다양한 소통을 진행하는 <밥 먹고 가세요>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기획한 작가.



박혜민 작가의 <밥 먹고 가세요>, <이야기 만물상> 프로젝트

▶ 사례1: <밥 먹고 가세요>

- **추진내용:** 박혜민 작가가 한국에서 진행해오던 <밥 먹고 가세요> 프로젝트는 인천의 수봉다방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원래는 슈퍼마켓이었지만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유휴공간을 정미타 작가, 김보리 작가를 비롯한 여러 동료 작가분들과 함께 수봉다방이라는 이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운영하며 지역 기반 참여형 공간이자 플랫폼으로 기획함. 수봉다방의 1층은 문화공간으로 2층은 문화공간 및 카페로 사용했으며, 그 공간에서 참여형 프로젝트 추진함.
- **프로그램 내용:** 이 프로젝트는 음식재료를 손바닥 크기의 캔버스에 그린 이후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소장하고 싶은 작품의 음식재료를 시장에서 사 오면 그림과 실제의 음식재료를 교환하는 작업. 그리고 교환한 음식재료를 모아서 지역주민들, 관람객들 그리고 작가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44) 사진 및 내용 참고 <http://slownews.kr/57770>,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no=785780>

동시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었던 작업. 음식을 매개로 한 관람객 참여형 프로젝트.

▶ 사례2: <이야기 만물상>

- **추진내용:** 매일 자전거를 타고 인천 도원역에서 동인천 차이나타운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일상을 보내며 자신의 소장품과 거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소장품을 교환하거나 작은 대가를 지불하며 즐거운 소통을 하는 프로젝트. 소소한 일상을 모으는 만물상을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해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 마련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운영
- **시사점:** 박혜민 작가는 전시 및 문화예술교육 공간에서 다양한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주로 기획하는데, 오브제에서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소재를 중심으로 개인의 삶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다양한 ‘참여’의 방식을 설계하는 작가임. 거창한 역사적, 사회적 의미보다 개인의 삶이 우리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질문하고 이야기하고자함. 작업의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적 관점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음. 참여자가 직접 콘텐츠와 의미를 선택하고 기증, 교환, 교류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특징을 지님.

■ 사회 참여적 예술, 참여적 플랫폼 기반의 미술관교육프로그램 사례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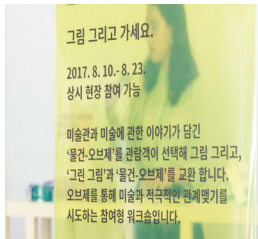
1. 미술관과 관람객 간 <관계 맺기> 프로젝트

- ▶ **제목:** <그림 그리고 가세요> 참여형 워크숍
- ▶ **일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로비, 2017.8.10.-2017.8.23.
- **추진방향:** 커뮤니티 기반 다양한 참여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박혜민 작가의 <밥 먹고 가세요> 프로젝트와 연계된 프로젝트로 기획됨. 박혜민 작가와 함께 미술관과 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오브제를 관람객이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린 그림’과 ‘오브제’를 교환하는 워크숍. 커뮤니티 기반 참여적 플랫폼 프로젝트를 주로 기획한 박혜민 작가와 연계하여 추진한 프로젝트. 13일 동안 관람객 13,494명 참여함.
- **프로그램 내용:** 현대미술에 대한 친숙도와 미술관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 맺기를 위해서 미술관 전 직원의 협조로 추진되었음. 미술관 직원들이 미술관 또는 본인의 업

45) 사진 및 내용 참고,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자료

무와 관련된 오브제를 기증하고, 기증된 300여점의 미술관 오브제는 관람객이 선택할 수 있음. 선택된 오브제에는 오브제에 대한 히스토리가 네임택으로 붙여져 있었으며, 선택된 오브제를 자신의 삶(집 등)과 연계된 곳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캔버스/드로잉지에 그 오브제를 그리는 프로젝트. 그려진 오브제는 미술관에 남게 되고, 오브제는 관람객이 가져갈 수 있음.

- **시사점:** 이러한 과정은 관람객(참여자)과의 적극적인 ‘소통’, ‘참여’를 지향하는 미술관 교육의 의의를 담고 있음. 미술관 전 직원의 기증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관람객이 미술관을 오브제를 통해 발견하고 미술관 안의 공간·작품·사람과 생각·사물에 대해 질문하는 경험을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



국립현대미술관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Chapter 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는 누구일까

류해석(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시위주, 주입식 위주의 교육에 상처받고 갇힌 사고의 학생들이 창의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이며, 학생중심, 학생주도의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하고 실행, 평가되어야 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가의 상상력과 현장 교사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보다 긴밀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안에서 예술강사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작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협력해야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교사들의 예술교육 역량,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펼쳐질 때 주체는 누구이며 각 주체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인 학교교사의 양성과정의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양성과정과 학교임용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한국과 영국의 예술교육 주체에 대한 양국의 현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영 양국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알아두기

✓ 한국의 교원양성과정

- 초등학교 교원의 임용방식은 전국의 초등교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원하는 지역에 지원을 하여 임용고사를 거쳐 학교에 배치됨. 중등 교원의 임용방식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외 일부 대학에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의 과정을 거치거나 대학원에서 해당과의 석사과정을 통해 임용자격을 취득 후 임용고사를 거쳐 학교에 배치됨

✓ 영국의 교원양성과정

- 잉글랜드 지역 내 초·중등교육 기관의 교원은 공립학교의 근무를 희망할 경우 교직 이수 과정 수료 및 교사 능력 시험을 통과한 뒤에 수여되는 '교사자격증 (Qualified Teacher Status, QTS)'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공립학교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이들만 교원으로 고용할 수 있음. 단,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자격증이 없는 이를 교원으로 고용할 수도 있음
- 모든 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석사 학위(PGCE)를 가지진 않음. 그러나 특히 중등학교의 교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대개 과목별 전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학 석사 학위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음

✓ 예술교육 관련 한국 교원양성과정의 장점과 한계점

- 한국의 교원양성과정을 통과한 교사들은 안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음. 그러나 교사들은 안정적 직업을 이용하여 기존의 교육방식을 변화시키고 학생의 성장에 관심 갖기 보다는 경제적 삶의 안정과 직위에 만족하여 학교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한계성도 있음
- 초등은 교원양성기관에서 예술교과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장에 임용된 후에는 예술교과를 전담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전공을 100%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타 교과 수업 시 예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있음

- 중등의 경우는 대학에서 전공한 예술교과로 임용을 치루고 난 후, 자신의 전공분야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나, 자신의 전공 외 다른 예술장르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중등 예술교과의 대부분이 서양음악과 서양미술 전공임)

✓ 예술교육 관련 영국 교원양성과정의 장점과 한계점

- 잉글랜드에서의 교사는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을 교원으로 임용하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교사의 지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음
- 교사는 학교장에 의해 고용되는 형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역량(예술적 역량 포함)을 갖추어야 인정을 받고 재고용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단위학교 교원모임, 타 학교 교원들의 모임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교사로서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부담감과 업무 부담이 많아, 교사 이직률이 높아 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음

- ▶ 영국 전국교사연합(NUT)의 최근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53%의 교사가 향후 2년 이내에 교직을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타남. 또한 교직을 그만두길 원하는 교사들의 61%는 현재의 업무 과중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57%는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이직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남.
- ▶ NUT의 사무총장 크리스틴 블로워는 “이번 조사는 교원들의 업무과중과 사기가 교육에 질에 얼마나 부정적이고 복합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며, 교육부의 교원 업무부담 감소 시도가 전체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음. 그는 또한 수 년 내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지만,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프리스쿨을 늘리거나 학생수용인원을 늘리는 것 말고는 없으며, 교원에 대한 증원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1. 예술가적 교사,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움직이는 힘

- 학교 예술교육의 활성화에 대해 얘기하고자 할 때, 학교에서 일어나는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두 주체로 학교 교사, 예술강사(예술가)로 설명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활성화로, 국악, 영화, 연극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가 학교에 파견되어 예술교육을 담당하기도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은 대부분 교사를 통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 한국 초등학교의 경우, 예술교과목을 위한 전담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초등교사가 예술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대학교에서의 전공이 학교예술교과를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되지는 않음.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예술교과를 전공으로 한 교사들이 대부분 예술교과(음악, 미술)를 전담하여 가르치고 있으나 본인 전공 외 타 전공에 대한 예술교육은 개인적 역량에 따라 상이하게 차이가 남. 예컨대 서양음악을 전공한 교사가 국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인적 연수를 통해 국악 지도역량을 강화해야하는 개인적 역량강화라는 과제와 한계성을 갖고 있음.
- 영국 초등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전 과목을 가르치는 일반 교사(Generalist Teacher)가 미술·디자인(Art & Design) 과 음악(Music) 과목을 직접 담당함. 그러나 교원의 배치 문제는 학교별 자율적 선택에 따르므로, 일반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음악과 미술·디자인 관련 전문 교원을 고용 할 수도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 과정에서 예술교과는 일반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보편적임. 중등학교의 경우 Key Stage 3에 해당하는 기간(lower secondary level)에는 전문 교원(예체능 교사)이 예술 과목을 교육함. 대개의 경우 담당 과목에 대한 전문 석사 학위를 보유한 교원이 대부분이며, 예술 과목의 경우도 각 영역별 예술 학위 소지자 및 해당 분야 교육 관련 교직 이수 과정을 거친 경우가 대부분임.
- **(Oreston Community Academy⁴⁶⁾)** 영국 폴리머스 지역의 아츠마크 인증학교인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를 방문했을 때, 이 학교는 지역의 역사를 배경으로

46)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orestonacademy.com/>

학생들이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종결과물로 전교생이 함께하는 연극(뮤지컬)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음.

- 또한 대부분의 예술수업을 교사들이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 선발권이 교장에게 있어 예술수업역량이 있는 교사를 선발하여 연극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

“우리는 대부분의 예술 수업을 교사들이 진행합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언어(영어)교사인 레이첼은 드라마틱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연극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 방문 시 인터뷰 내용 중

-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예술의 활성화,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 파트너 기관인 '브리지기관(Bridge Organization⁴⁷⁾)'의 조언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예술과 문화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짐.
- 예술교육을 문화교육을 위한 도구교과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을 이해하고 교과의 성취기준을 높이기 위해 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츠마크 스쿨이라는 명칭을 학교홍보와 학생유치에 활용하고 있음.
- (Plymouth School of Creative Arts⁴⁸⁾, 이하 PSCA)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는 영국의 일반학교와는 차이가 있는 대안학교로서 지역사회의 요구로부터 태생된 학교이며 예술이 도구교과가 아닌, 예술이 중심이 되는 학교로서 '만들고 발견하고 행하라'(Make, Discover, Perform)라는 어젠다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 PSCA에서는 교사 뿐 아니라, 전문예술가가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열린 공간(창문을 통해 바다를 볼 수 있으며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수업하는

47) 브리지기관(Bridge Organization)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수한 예술, 문화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술기관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기관.

홈페이지 <http://www.artscouncil.org.uk/children-and-young-people/bridge-organisations>

48)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홈페이지 <http://plymouthschoolofcreativearts.co.uk/>

공간이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여 학교디자인을 열린 공간으로 배치함)으로 학교를 디자인하여 환경을 통한 소통과 공유의 자유로움을 시도함.

- 학생들의 다양한 시도를 격려하는 학교분위기와 예술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 학교가 활용(주말에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림)될 수 있어 학교가 지역이자 소통과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Theatre Royal Plymouth⁴⁹⁾) 학교의 교사들이 예술교육의 대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드라마교육이 필요할 시 이 극장에 요청을 하면 드라마실기 및 기획연수를 진행하여 교사의 예술역량을 높여 현장 실천력을 향상시킴. 학교 단위로 신청하기도 하며 학교 간 필요한 교사들의 모임에서 신청하기도 함.

■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Oreston Community Academy) 사례

- ▶ 모든 수업은 융합교과(cross-curricular)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모든 수업의 결과물은 연극화하여 발표함. 연극을 발표할 때에 각 교과목 담당교사는 연극 프로젝트를 위해 소품과 의상을 준비함. 학교 방문 시 5~6학년은 플리머스 지역의 독일군 대공습(the Blitz)에 대한 내용을 수업하고 있었고, 3~4학년은 플리머스 지방의 켈트족과 로마인의 역사에 대해 수업하고 있었음. 3~4학년은 연극을 위한 리허설을 준비 중이었고, 교실에는 연극을 위한 소품들이 제작 중이었고, 교실 벽면에는 다양한 학습 활동 자료(군인 복장에 자신의 얼굴 붙여 전시하기 등)가 전시되어 있었음.
- ▶ 연극 프로젝트를 위해 각 교과의 교사들은 학년 초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습 효과의 최대화를 위해 만들기, 제작하기 등 예술창작활동을 수업 활동의 중심 활동으로 융합하여 지도하고 있었음. 학년말 교육활동으로 연극공연을 준비하여 한 학기의 수업이 무대 위에서 융합되도록 준비하고 있었음.

49) 왕립 플리머스 극장 홈페이지 <https://www.theatreroyal.com/>



‘17.11.29.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 4학년의 켈트족과 로마인에 대한 융합 수업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Plymouth School of Creative Arts) 공간 소개

-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하듯이 학교 내부에서 외부로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였음. 이 학교의 내부에서는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어 지역의 역사인 바다와 수평선의 가치를 담아내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것은 학교 내부 공간에도 적용되어 학생들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을 적용하여 자유와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음.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공간 (출처: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홈페이지)

II. 예술가가 학교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

- 앞서 말했듯이 학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렇기에 학교 안에 예술가적 교사의 존재가 학교의 예술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 그러나 예술의 다양한 영역과 장르를 교사가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예술가들의 작업, 예술가가 행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교사가 줄 수 없는 다양한 가치와 효과를 선물할 수 있음. 그렇기에 한국과 영국 학교 모두 다양한 방문 예술가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예술가 및 단체, 기관과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대표되는 협력 사업이 있고 영국 또한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이 잘 형성되어 있었음.
- 한국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여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소양, 창의력 등을 함양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임.
-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중 예술강사 지원사업 선정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및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수업시간에 8개 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의 수업이 운영됨.
- 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 지자체, 지역운영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고자 전국 초·중·고교에 예술분야 전문 인력과 연계하여 교육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을 목적으로 삼았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50)(CP)’이 2011년 9월말을 기해 정부지원이 중단되었으나51) CP의 문화예술과

50)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춘 문화예술과 창의성 문제를 교육과 접목시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 2002년 영국 문화부와 교육부의 공동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와 교육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서 탄생. 예술에서 활용되는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이끌어 내어 이를 통한 창의적 교수법을 새로운 통합교과 학습법으로 실현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학교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제고하는 것이 CP의 지향점임.

참고 자료 <http://www.arte365.kr/?p=4077>

관련된 활동을 매개로 모든 커리큘럼 상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 ‘기존의 관습 무너뜨리기’, ‘새로운 도전을 위한 위협을 감수해보기’, ‘일반적이지 않은 연결을 통한 사고하기’ 등의 창의적 사고 기술을 습득에 대한 교과에서의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은 아직도 영국의 예술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영국의 예술가들과 예술기관들은 Creative Partnership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교에서 예술가들이 더 활발히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학생들의 성장에 예술이 중요함을 증명하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뿐만 아닌 영국의 다양한 학문적 융합기관과의 협력으로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자 실제 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한 부분이 한국의 연구진에게 큰 자극과 영감을 불러일으킴.
- 예술가, 예술기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정신의 영향으로 플리머스의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아즈마크 스쿨)의 경우에도 예술강사 사업과 같은 티칭 아티스트가 교과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으나, 학교는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브리지기관, 문화기반시설 등)를 통해 학교 예술교육과 연계된 실용적 자료 및 교육 현장을 제공받을 수 있음.

“결국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게 현실로 만드는 부분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주변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 브리지기관 RIO의 조나단 인터뷰 중

“브랜딩을 해서 극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예술 파트너십을 하며 느끼는 것은, 참여의 중요성이 가장 큰 것 같다. 학교 교사와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

- 플리머스 왕립 극장의 Creative Learning team 인터뷰 중

51) 2010년 데이비드 카메론 보수당 정부가 집권한 이래 영국 문화예술계는 평균 30%에 달하는 공공지원 감축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 정부지원 하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던 영국 예술교육 지형 역시 급속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
참고 자료 <http://www.arte365.kr/?p=47681>

Ⅲ. 한국과 영국의 학교 예술교육의 주체 비교로 본 협력방안

-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생각했을 때, 학교 교사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예술가들이 학교에 방문하여 예술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임. 한국과 영국의 사례를 모두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학교안의 예술교육이 풍성해질 수는 없다는 것임.

- 각 주체별로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예술가(예술강사)) 학교 예술교육에서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할 수 있게 학생을 직접 지도하거나 학교와 협력하여 예술 기반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는 예술적 매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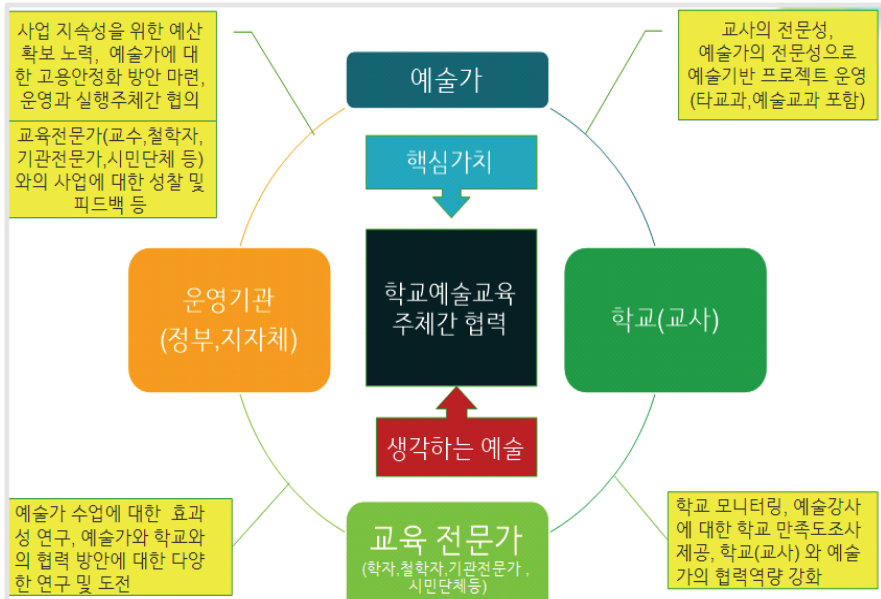
(학교교사) 교육과정에서 예술을 기반으로 타 교과와 연계하고 융합하여 예술가의 예술적 상상력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예술교육 실행자

(교육전문가) 정부와 지자체, 학교와 예술가의 역할, 예술교육에 대한 평가, 자문, 컨설팅 등 예술교육전반에 대한 연구 및 평가, 환류와 제언

(운영기관) 예술가와 학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확보 및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예술교육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교육 기반 조성

-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예술가의 필요성, 예술가의 역할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 학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가치는 “협력적 파트너십”이 될 것임. 또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기능적으로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술 자체를 느끼고 체험하며 고민해보는 “생각하는 예술”로의 가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학교 예술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학교교사-교육전문가-운영기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정리하여 모델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그림과 같음.

■ 예술가-학교교사-교육전문가-운영기관 간 협력방안(안)



- 정리해보면,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활기를 띄기 위해서는 학교 예술교육의 주체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보다 긴밀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만을 생각하며 모두가 같은 목표와 방향, 공감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으며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펼쳐지기 위한 긍정적 노력과 각 주체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 및 인정의 시간들이 주어져야 하겠음. 문화예술교육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닌 삶을 만들어가는 교육으로의 목적을 갖기를 바라며,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하겠음.

Chapter 5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학교

서공주(대구광역시교육정보연구원 연구사)

류해석(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잉글랜드 남서쪽 작은 도시 플리머스(Plymouth)는 학교와 지역사회와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모범적인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보여주었다.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는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PSCA)는 ‘만들고, 발견하고, 실천하는’ 예술 교육을 위해 지역 자연 환경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었다.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도 지역 사회의 맥락을 교과 융합의 형태로 녹아내고 있었다.

플리머스 소재 극장과 브리지 기관, 플리머스 예술 대학 등 지역 사회 기관은 지역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플리머스의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 사례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사회가 학교가 문화예술기반을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문화예술교육의 진정한 성과가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

1. 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니, 직접 만들어보자.

- 잉글랜드 의무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이하 PBL)이나 융합수업(cross-curricular learning)의 형태로 이루어짐.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을 확인하기 위해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PSCA)와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를 방문함. 2013년 자유학교(Free school)⁵²로 개교한 PSCA와 2011년 아카데미(Academy)로 전환한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Oreston Community Academy)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개별 교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와 프로젝트 형태로 융합 주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음.
- PSCA의 교육 중점인 창의적 예술 교육은 지역사회와 지역 환경을 기반으로 함. PSCA의 데이브 스트러드윅(Dave Strudwick) 교장은 지역 사회와 학교의 물리적 환경, 예술적 건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함.

“수평선(horizon)은 우리 학교 교육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곳곳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유리창을 통해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학교 1층 건물 벽이 모두 유리로 건축된 이유도 안과 밖을 연결, 즉 학교와 세상이 서로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창문을 통해 플리머스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항해하는 꿈을 키우게 됩니다. 학교 천정에 실물 보트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셨나요? 여기(2층 교무실 앞)에도 완성되어 가는 실물 보트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은 보트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배를 만들고 그 배를 바다에 띄우는 진정한 경험(authentic experience)을 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52) 영국의 자유학교(free school)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아카데미(academy)의 한 종류로 2011년 이후 ‘자유 학교 프로그램’에 의해 세워진 새로운 아카데미이다. 아카데미는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지만 비영리 자선 재단(non-profit charity trust)의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학교의 재정을 위해 자선기금 모금 활동이 가능하다.



17.11.29. PSCA 융합동아리활동인 보트 만들기 프로젝트 설명(좌), 실제 제작 장면(중, 우)

- 이러한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PSCA)의 예술 교육 철학은 학교 교육과정 첫 페이지에 선언된 것처럼 ‘만들다, 발견하다, 실천하다(make, discover, perform)’를 지향함. 즉 PSCA의 교육은 ‘배우기 위한 만들기(making to learn)’를 통해 교육 과정의 모든 활동을 만들고 표현하는 예술 교육과 연결함. PSCA의 교육은 창의성을 가진 전인(whole person)을 기르기 위하여 배움의 실제성(authenticity)를 중시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의 교육 철학을 모든 수업에 적용함. PSCA의 데이브 스트러드윅 교장은 PSCA의 교육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⁵³⁾.

“우리의 방식은 PBL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프로젝트에는 만들기의 과정이 포함되고 실제적 목적과 실제 청중이 존재합니다.”

Our approach could be seen as Project Based Learning. It is connected into the process of making and having a real purpose and audience in relation to any project.

- PSCA의 데이브 스트러드윅(Dave Strudwick) 교장

- PSCA의 예술 교육은 분리된 교과로 존재하거나 추가적인 과목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과학 등 다른 과목과 융합되어 PSCA 창의성 교육의 중심으로 간주됨. PSCA의 예술교육은 보트의 그림을 그리거나 보트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탈 수 있는 실물 보트를 직접 제작하는 것과 같은 실제성(authenticity)을 추구함.

53) Plymouth School of Creative Arts Curriculum Statement and Policy(D. Strudwick, 2014, p.6)

- 여기서 실제성(authenticity)이란 ‘바다’라는 지역 자연 환경을 학습 동기로 사용하여, 매일 바라보는 바다와 항해에 대한 꿈을 꾸게 하며, 단순히 바다와 배(보트)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과학, 미술, 목공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여 직접 보트를 만들고(make), 보트의 원리를 발견하는(discover) 경험을 의미함.
- 보트 만들기 이외에도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제작된 예술 작품을 런던의 테이트 익스체인지(Tate Exchange)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의 예술교육이 사회와 연결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우리 학교의 교육은 현실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의 배움 활동은 실제입니다.”

Our education is NOT about ‘realistic’, but our teaching and learning is ‘REAL

- PSCA의 데이브 스트러드윅(Dave Strudwick) 교장



‘17.1.23~25. 플리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스쿨(PSCA)의 테이트 익스체인지 체험 학습

II.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한 학생의 생애를 고민하다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Plymouth Creative Art School, 이하 PSCA)은 2011년 개교한 자유 학교로 공립학교이지만 재단(trust)에 의해 운영됨. PSCA의 재단은 2017년 기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장은 앤드류 브류어튼(Andrew Brewerton) 플리머스 예술 대학의 학장이며, 교장인 데이브 스트러드윅(Dave Strudwick)과 초중등과정(Phase 2~4)의 예술 교사인 제프 스트라톤(Jeff Stratton)도 위원회에 속해 있음. PSCA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학교임. PSCA의 재단 위원장(Director of PSCA Trust)인 앤드류 학장은 2011년 정부가 자유 학교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을 때 PSCA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함.

“누군가의 삶에서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창의적 교육에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철학(pedagogy)과 새로운 학습의 지평선(learning horizon)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종류의 학교를 계획하고 형태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앤드류 브류어튼, 플리머스 예술대학 학장(총장)

- 이렇듯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는 지역 사회의 수요에 의해 지역 주민이 재단을 구성하여 세워진 학교이며,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학교의 교육 철학을 이해하는 지역 주민이 이 학교를 선택함. 재단,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학교 운영의 적극적인 주체가 됨. 영국이 2011년 이후 도입하고 있는 공립학교의 사립학교화의 성공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PSCA는 학부모, 교사 및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학교 후원회(Friends of PCSA) 활동을 통해 축제, 자선 바자회,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학교 기금을 조성함. PSCA 재정의 주된 구성은 정부의 지원금이지만, 지역 사회의 자선 재단의 지원금 및 학교 후원회에서 조성된 발전 기금을 학교 재정에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PSCA의 보트 빌딩 프로젝트는 트리니티 하우스(Trinity House)⁵⁴⁾와 플리머스 드레이크 파운데이션(Plymouth Drake Foundation)⁵⁵⁾에서 연 2,220 파운드(약

3백만원)의 지원금을 후원받음. 2016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5,780 파운드(약 8백 40만원) 정도가 모금됨.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조성되어 어떤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학부모와 학교 후원회에게 공지함.

- 플리머스는 영국 서남쪽의 작은 도시이지만 지역 주민의 교육적 관심이 높고, 지역 사회의 브리지 기관들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사회의 예술 기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예를 들면 플리머스 지역의 브리지 기관인 RIO⁵⁶⁾ (Real Idea Organization)는 앞서 설명한 영국예술위원회의 아트마크 등을 지원협력하기도 하지만, 플리머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단체(사회적 기업)이기도 함. 특히 ‘파워 투 체인지(Power to Change)⁵⁷⁾’에 의해 지원받는 국가 프로그램인 ‘연결된 학교(Connected Schools)’ 사업을 플리머스에서 주관하고 있음.
- 플리머스의 다양한 단체 및 기관들은 PSCA뿐만이 아닌,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 등이 지역의 학교의 교육, 예술교육을 위한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음. 이는 한 학생의 생애과정, 특히 개인적 삶에서의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4) 런던 소재 바다 및 선박 관련 활동 후원 민간 단체 www.trinityhouse.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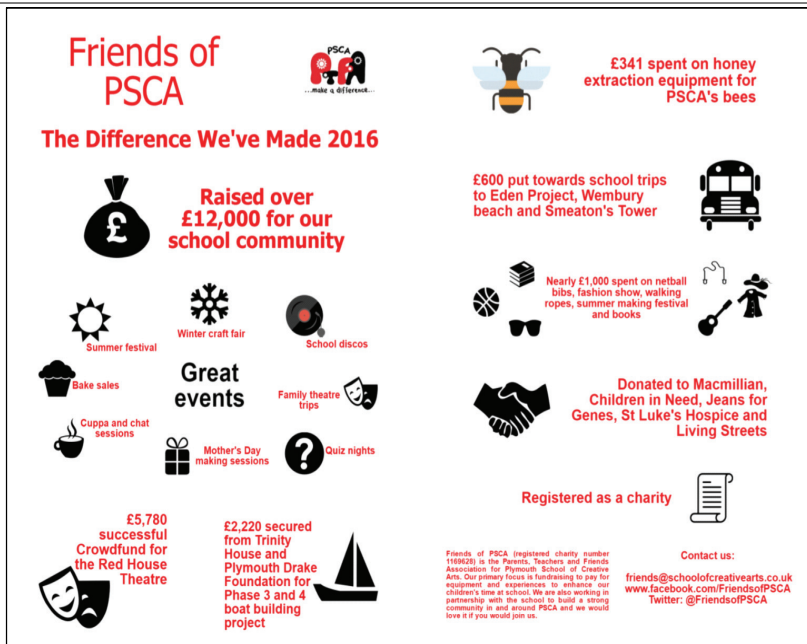
55) 플리머스 지역 관련 사업 후원하는 민간 단체 www.drakefoundation.co.uk/ 기관의 목표는 ‘풍요롭고 건강하고 활기찬 플리머스 지역 사회’의 건설이다.

56) 플리머스 소재 브리지 기관으로 학교와 기관을 연결하는 민간 단체 <https://realideas.org/>

57) 지역 사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 www.powertochange.org.uk/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PSCA)의 기금 모금 활동 사례

- ▶ 학교를 위해 모금된 금액은 총 12,000 파운드로 왼쪽 편의 대 행사(Great events) 중에서는 위편 가운데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겨울 공예 전시회(Winter craft fair), 학교 디스코 축제, 가족 연극 여행(Family theatre trip), 퀴즈의 밤(Quiz nights), 어머니 날 행사(Mother's DAY), 티타임(Cuppa and chat sessions), 쿠키 판매(Bake sales), 여름 축제(Summer festival) 등의 행사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였고, 왼편 아래쪽의 레드하우스 극장의 크라우드 펀딩 5,780 파운드, 맨 아래쪽 가운데의 보트 프로젝트 2,220 파운드를 지원받음. 오른편에는 예산을 사용한 내역임. 위편부터 골별 활동에 대해 341 파운드, 에덴 프로젝트, 웹버리 해안, 스미턴 탑 현장체험학습에 600파운드, 운동기구, 행사 용품, 서적 등에 1,000 파운드, 그 외 맥밀란 외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임을 보고하고 있음.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PSCA)의 기금 모금 활동 사례

Ⅲ. 지역 극장이 학교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 플리머스 왕립 극장(Theatre Royal Plymouth)⁵⁸⁾은 1982년 개관하여 2012년 개관 30주년을 기념함. 줄여서 TRP라고 불리는 플리머스 왕립 극장은 연극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3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극장을 이용함. 청중의 규모가 크고 인기 있는 작품을 공연할 때에는 1,300명 규모의 리릭(Lyric) 극장, 실험적인 연극에는 170여명 규모의 드럼(Drum) 극장, 청년과 지역사회의 실험 공연에는 50여명 규모의 랩(Lab) 무대를 각각 이용함. TRP는 다양한 연령과 사회집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면 2~4세의 유아를 위한 ‘작은 이야기(Tiny Tales)’ 프로그램이나 망명자를 위한 ‘다이얼로그(Dialogu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플리머스 왕립 극장은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넵툰 파크(Neptune Park)에 예술 교육 및 연극 소품 제작 전문 작업장 ‘플리머스 왕립극장 프로덕션 앤 러닝 센터 TR2’⁵⁹⁾를 운영하고 있음. TR2는 연극 리허설 공간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데, 왕립극장의 리릭(Lyric), 드럼(Drum), 랩(Lap)의 무대와 같은 크기의 리허설 룸 3개가 있어 리허설에 사용되며, 리허설 룸은 교육이나 세미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함. TR2에서는 플리머스 왕립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극의 소품과 무대가 직접 제작되는 작업장(workshop)을 운영하고 있음.
- TR2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학교의 단체 방문(school group booking), 학교 파트너십(school partnership), 학교 프로젝트(school project), 학교 지원 워크숍(school reach worksho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 중 특히 학교 지원 워크숍(School Reach Workshop)은 플리머스에서 활동하는 연극 전문가가 학생들의 읽기, 말하기, 쓰기 및 자신감 극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임. 예를 들어 리치 스피치(Reach Speech) 워크숍은 말하기 능력의 향상, 리치 리딩(Reach reading) 워크숍은 읽기 능력의 향상, 리치 라이팅((Reach writing) 워크숍은 쓰기 능력의 향상, 리치 리질리언스((Reach resilience) 워크숍은 자신감 회복, 리치 디바이싱(Reach Devising) 워크숍은 만들기를 중점으로 하며, 리치 포텐셜(Reach Potential) 워크숍은 잠재력 성장을 목표로 함.

58) 플리머스 왕립 극장의 홈페이지 www.theatreroyal.com

59) 정식 명칭은 Theatre Royal Plymouth's Production and Learning Centre, 주소는 TR2, 12 Neptune Park, Plymouth PL4 0SJ이다.

■ TR2 리치 포텐셜 워크숍 사례

- ▶ 리치 포텐셜(Reach potential) 워크숍은 자신감, 창의성, 자존감을 향상시키기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임. 리치 포텐셜 워크숍은 학생들이 연극과 창의극을 사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 소그룹으로, 자신감 향상이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예술을 통하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고 있음.



TR2에서 이루어지는 리치 프로그램(좌), 초등학교(중), 중학교(우) 파트너십 프로그램

- TR2는 교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학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사(학교)에게 연수를 제공함. 같은 학교의 교사, 혹은 다른 학교의 교사가 함께 연수를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 TR2에서 제공하는 교사 연수는 Phase 3 혹은 4의 드라마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연극 전문가가 연수의 강사가 되어 드라마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함. 연수의 시기와 기간 등은 모두 학교와 개별 교사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융통성 있게 진행됨.
- TR2 뿐 아니라 플리머스 소재 바비칸 극장(Barbican theatre)에서도 유아부터 25세까지의 청년을 위해 연극과 관련된 수업을 제공하고 있음. 플리머스 소재 학교들은 학교 자체의 문화예술 방과후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지만, 지역 소재 극장이 제공하는 풍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학교에 비치하기도 함. 다음은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 학교 현관에 비치된 바비칸 극장의 연극 트레이닝의 브로셔(왼편)와 브로셔 안에 소개된 무용, 연극, 예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내용(오른편). 대부분은 연간 10만원~20만원의 저렴한 수업료를 받지만,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되어 문화예술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을 엿볼 수 있음.

"Performance Training! has given my son something I never thought imaginable, the confidence to be himself."

CONTEMPORARY

"I grew in confidence, got to complete an Arts Award, learnt to deliver drama sessions for children and performed in a professional production."

INSPIRING

"It is very friendly and full of innovative and creative ideas"

INCLUSIVE

barbican theatre
CASTLE STREET, FLYMOUTH, PL1 2NU
barbicantheatre.co.uk

Only 10 minutes walk from the city centre
01752 267131 | btp@barbicantheatre.co.uk

Photo Credit: Sam West - Photographer
Registered charity number: 810488

CLASS	AGE	DAY	TIME	PRICE
Twinkle Steps (creative ballet & dance)	1½ - 2½ 2½ - 4 4 - 6	Mon Mon Tue	10 - 10.30am 10.45 - 11.25am 4 - 5pm	£45/£90 £70/£140 £80/£160
Little Bo (creative, fun drama & storytelling)	3 - 4	Mon	1.30 - 2.30pm	£70/£140
Little Entertainers (theatre & movement)	5 - 7	Mon	4.45 - 5.45pm	£80/£160
Dance Moves	8 - 11	Mon	5 - 6.15pm	£100/£200
Theatre Moves	8 - 11	Mon	6.15 - 7.30pm	£100/£200
Dance Junction*	12+	Thu	5 - 6.30pm	£105/£210
Theatre Junction	12+	Thu	6.30 - 8pm	£105/£210
Company Dance*	14 - 25	Tue	6 - 9pm	£130/£260
Company Theatre*	14 - 25	Wed	6 - 9pm	£130/£260
Tech FORCE**	15 - 25	Tue	4 - 6pm	FREE
Dance FORCE**	15 - 25	Thu	6.30 - 7.30pm	FREE
Theatre FORCE**	15 - 25	Wed	5 - 6pm	FREE
Arts FORCE**	15 - 25	Tue	5 - 6pm	FREE
INDIA (International Theatre Connections)	14 - 18	Wed	6 - 8pm	By Application

TRP에서 제공하는 브로셔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 비치 자료)

- 폴리머스 소재 2개의 학교와 폴리머스 극장 및 브리지 기관과의 연계를 살펴보면, 영국 보수정권 집권 이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예술단체와 학교의 협력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중단되지 않고 지역 사회별 특성에 맞게 정착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교육공동체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함.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이 문화예술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은 영국이나 한국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과 지원이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융성의 비결인 것으로 생각됨. PSCA나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처럼 공립학교이지만 자율권을 좀 더 부여받은 학교들은 학교 안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여 융합 교육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추구하고, 이에 대하여 지역 사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하거나, 전문가의 수업 지원을 제공하거나, 문화예술적 창의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함.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지역 주민이 지역 사회의 학교를 통해 차세대 예술가와 예술 소비자를 모두 길러내는 형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영국의 우수함을 볼 수 있음.

IV. 학교의 또 다른 이름, 마을 공동체

- 한국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길라잡이를 제공하며 지역의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하여 학교의 예술교육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 성과공유 등의 기회를 제공함.
-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연계와는 별도로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을 2014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축제, 예술단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마을별 축제 등 지역의 특색에 맞는 예술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음.⁶⁰⁾
 - ※ 광명교육지원청의 마을별 축제, 안양교육지원청의 안양삼덕종이축제와 연계한 어울림한마당, 파주교육지원청의 예술인마을 헤이리와 함께하는 미술체험 등이 대표적인 예임.

■ 경기도 교육청의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의 방향



-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은 ‘마을이 학교다’ 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 아이들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학교는 마을 안에 있기에,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함. 경기도교육청은 ‘축제’ 라는 활동으로 학교안의 학생을 마을과 연결시켜 지역주민과 지역의 역사, 자원들과 자연

60)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에 관한 내용은 2017.11.29, 영국 플리머스 라운드테이블(워크숍)에서의 사례발표(류해석 장학사 발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힘

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함.

- 영국에서에서도 지역기반 커리큘럼(Area Based Curriculum)을 개발하여 학교 및 교사와의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역의 자원을 학교교육과정에 적극반영하고 있음.
-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만 보더라도,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학생들은 플리머스 지역의 전쟁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역사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드라마를 활용하여 대형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음.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PSCA)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교를 혁신을 위한 실험실, 더 나아가 새로운 사고를 위해 지역 사회 역시 실험실로 간주하고 있으며 학교는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오픈되어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기도 함.
- 브리지 기관인 RIO의 조나단은 학교와 지역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환의 구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학생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학교는 지역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의 생태계가 잘 형성될 수 있다고 함.

“마켓 공간이나 가게 문 디자인 등을 학생들이 해볼 수 있도록 지역의 리더가 공간 사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배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마을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직접 풀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 조나단(리오 RIO, Real Idea Organisation)의 발표 중



“지역사회에서 창의적인 학생(Creative Young Person)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보통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의 맨 위쪽 삼각형(Placed based leaders)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각계 대표 인사,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대표,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참여하는 대표, 지역 인사들은 그들마다 흥미롭게 참여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예컨대,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가족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아동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지 등등입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풀어나가는 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 조나단(리오 RIO, Real Idea Organisation)의 발표, 지역의 생태계 이야기 중

V. 마을과 학교의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시사점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기반 교육과정의 운영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자원을 수업의 소재로만 단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예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교육과정의 중심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의 단순체험이 아닌,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을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학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이 제2의 학교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지역 특색을 살리는 지역기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어울림한마당 축제와 같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다양한 축제를 통해 소통과 나눔,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생태계가 삶의 에너지로 넘칠 수 있도록 함.
- 지역과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리지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을 연계한 예술교육 학교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업을 바탕으로 한 예술전문 브리지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학교와 마을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의 생태계 안에서 학교의 아이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끌어내야 내야 함. 예술은 학교와 마을의 창조적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아이들이 마을과 학교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Chapter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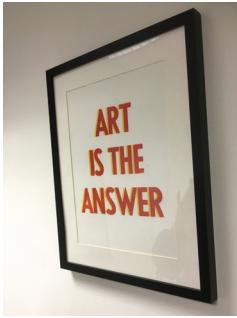
예술기반 커리큘럼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의미

류해석(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예술교육은 다양한 교과에서 하나의 교수학습방법의 감성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 교육의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예술교육은 교과 지식습득을 위한 감성교육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체험과 경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흔히들 예술교육은 즐겁고, 표현하고, 나누며 공감하는 정서적 측면으로서만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예술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 다양한 관계를 연결하는 재구성 능력, 오래된 것을 새롭게 만드는 재구조화 능력 등 모든 교과의 지식의 기반이 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예술은 즐거운 과정이라는 것도 실은 예술의 작업과정의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술은 끊임없는 고민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예술은 고민과 도전이 없으면 완성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예술이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도구로만 한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프리머스 예술대학(Plymouth College of Art) 입구에 걸려있는 '예술이 답이다(ART IS THE ANSWER)'라는 문구는 예술이 갖고 있는 속성이 지식습득의 기본이자 목표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술기반 교육과정은 예술교육의 정서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즐기고 나누는 단순체험과 경험에 머물렀던 학교예술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술이 갖고 있는 협업, 도전, 인내,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등이 다양한 교과와 융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인류의 지적유산, 예술의 장르,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공공성 실천의 방법 등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술기반 교육과정실천으로 문화적 감수성, 지식에 대한 다양한 사고, 다양한 역량을 신장시켜 학생의 생각을 키우는 '생각하는 예술교육'으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1.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의 예술기반 커리큘럼



플리머스 예술대학(Plymouth College of Art)의 벽 액자에 붙어있는 문구이다.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예술대학교는 예술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자체가 교육의 목적이고 예술교육 안에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창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있다.”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이하 PSCA)의 교육과정은 ‘만들고, 발견하고, 행하라’라는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으며, 예술적, 문화적 학습은 이해와 기술과 개인적 특질의 발달에 관련된 것으로 모든 교과에 걸쳐 작용하는 예술기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음.
- PSCA의 교육과정 전체를 흐르는 것은 창의성이며, 창의성은 모든 교과를 꿰뚫고 있는 공통분모임을 강조하고 있음.
- PSCA의 예술기반 교육과정은 예술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예술이 갖고 있는 창의성, 감각을 깨우는 힘 등은 모든 교과에서 필요한 요소이며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량임을 강조하고 있음.

“삶은 이론적 과정이 아닌 ‘전체 몸’으로 무언가를 겪으며 진행되는 활동을 필수로 한다.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에 동시에 활동성을 뛰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가 나 혹은 다른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PSCA 교육과정 소개 중 발췌

- PSCA의 수업을 보면 예술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이 감각을

깨우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작업이 감성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그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학습요소임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었음.

- PSCA에서의 예술은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영역이며 예술 자체가 갖고 있는 창의성과 에너지는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학교교육과정에서 예술과 예술적 활동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교육과정 일부 소개

▶ PSCA의 만들기 활동을 기초로 한 탐구 활동

-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연관된 여러 부분(part: 교시)을 경험함
- 탐구는 학생에 의해 생산된 개인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으로, 도움을 바탕으로 하며, 무엇을 만들까하는 생각과 관련된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단계(phase)의 문제가 제기되고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미리 계획된 내용이다. 자기의 질문이 떠오르고 이는 후에 경험으로 체화된다. 자기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동안 탐구는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된다.
- 자극은 배움에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준비된 주제와 질문이 학생들을 질문하고 싶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후에 이 질문들을 학생들의 경험으로 체화시킬 것이다. 이 과정은 자신이 만들고 싶어 하는 무언가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정제하도록 한다.
- 만들기는 보다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자신의 디자인을 피드백을 바탕으로 반복 수정하며 자신의 '결과물'을 완성시킨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과정은 프로젝트 경영 능력과 개인의 작업 독립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만들기 과정은 동영상, 오디오, 학교신문, 블로그에 기록한다.
- 배움 나누기는 만들기 활동을 하며 배운 내용과 활동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피드백을 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는 인지과정을 포함한다.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어련에 의한 평가 모두는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된다. 교직원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청중삼아 제작된 물건과 자기 학습을 발표한다. 후속 학습으로 학습자들은 다음 목표를 정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II. 한국에서의 예술기반 교육과정

- 한국에서의 예술교육은 예술교과, 예술교과 간, 예술과 타 교과와의 융합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음.
- 예술기반 교육과정은 예술과 타 교과와의 융합교육에 가까울 수 있으며 예술을 타 교과의 성취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예술자체가 갖고 있는 창의성이 타 교과의 요소와 같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예술기반 교육과정은 예술을 활용하여 타 교과의 성취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소극적인 예술교육에 머물고 있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과학과 예술교육 융합수업에서 어느점에 대해 공부를 하는 과학 단원에서 얼음으로 다양한 성을 쌓아보는 경험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수업이라 말하는 경우도 있음. 이것은 단순히 예술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단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음.
-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⁶¹⁾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중 ‘심미적 감성 역량’을 강조하고 있어 모든 교과에서 심미적 감성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예술을 기반으로 한 수업이 활발해질 수 있는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 예컨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과 예술교육에서도 예술융합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타 교과와 예술이 융합하여 학생들의 참 성장과 성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외 다른 시도에서도 예술과 타 교과가 융합된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융합 교육 역량을 신장하고, 융합적 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교과연구회 중심으로 예술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함.

61) 문·이과 칸막이 없는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여기에서 ‘창의 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 예술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논의 사례

- ▶ 경기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융합교육 세미나 실시(2017.12.13.)(학교예술교육 융합교육 세미나 기사 중 발췌)
- 본 세미나는 ‘하나 되는 학교예술교육’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융합 교육 역량을 신장하고, 융합적 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전국에서 음악·미술 교사 200여 명이 참여.
- 특강은 교육부 김석권 인성체육예술과장의 ‘학교 예술교육의 현황과 미래’, 성균관대 오종우 교수의 ‘예술, 4차 산업혁명에 깃든 융합미학’을 주제로 이루어짐.
- 이 강연을 통해 오종우 교수는 음악과 미술이 미래교육을 위해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열어주고, 현재적 가치를 회복하는데 필요함을 강조.
-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한국미술교육연구회와 경기도음악교육연구회에서 음악·미술 융합교육의 확산을 위해 개최한 첫 번째 행사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감성중심의 교육 방법과 문화향유에 필요한 소양능력 신장을 위해 마련.
-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장은 “이번 세미나가 미래교육을 위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교육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융합교육을 통해 예술을 향유하고, 적용하는 수업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Ⅲ. 예술기반 교육과정의 방향

- 예술을 단순 체험과 타 교과와의 성취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극적인 활용이 아닌, 예술 자체가 갖고 있는 창조적 기능, 창의적인 시선, 감각을 깨우는 교육,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등 예술 활동이 갖고 있는 감성교육이 모든 교과의 공통적인 요소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 예술 자체에 대한 교육, 예술을 예술로 가르치기, 예술을 활용하는 교육, 예술기반 교육과정 디자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과 특성과 학교특성, 학생특성에 맞는 예술교육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함.
- 예술교과 교사 뿐 아니라, 타교과 교사들의 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모든 교과에서 예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융합하여 학생의 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교과외의 차시 목표 달성에서 벗어나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미래사회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역량중심의 예술기반,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교과 간 개방 뿐 아니라, 공간에 대한 개방을 통해 자유로운 학습분위기 조성을 통해 예술이 자유롭게 학교 내에서 움직이며 서로 공감하고 지식에 감성이 융합될 수 있는 예술적 환경조성이 매우 필요함.

Chapter 7

명료한 언어, 어젠다(Agenda)의 미덕

제환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의전담교수)

영국 문화예술교육/창의배움(창의학습)의 흥미로운 점 하나는, 각 지역정부의 문화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적 어젠다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적 개별성, 통합된 시스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갖는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시대정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국가적 철학이 궤도를 맞추려는 노력이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철학은 보다 명료한 언어를 사용한 어젠다로 정리되었으며, 이 어젠다는 사회 구성원 전반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본 장에서는 명료한 언어, 어젠다가 어떻게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지탱하는지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명료한 언어가 지닌 설득의 힘이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다

- 영국은 다양한 기관에서 예술교육과 창의력의 관계를 명료화하려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사회의 성공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태도, 가치 및 역량들을 키우는지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임. 지금까지의 예술가들의 주장이나 기존 연구로는 여전히 “예술적 활동과 학교에서의 성취도 향상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임.
- RSA는 2017년부터 EEF(Education Endowment Foundation)⁶²⁾ 와 함께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교육적인 결과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는 만연해지는 경쟁과 기존 지식체계의 해체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교과와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임. 이렇듯 단순히 “예술을 가르치면 좋다”가 아니라 예술과 인지능력 등의 상관관계의 구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가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 중임.
- 스코틀랜드의 문화예술교육을 이끄는 기관인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의 경우, 이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과정을 선명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매우 사소하고 일상적 용어까지 모두 재정의(redefine)하고 있었음. 예컨대 켄 로빈슨⁶³⁾은 “상상력은 독창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고, 창의력은 적용된 상상력이다.” 라고 정의함(출처: 창의적인 스코틀랜드, 조안 파르 발표). 또한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방향성이, 지역 내 초등학교와 극장 등 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성과 맥락과 궤를 함께 하고 있어 인상적이었음.
- 명료한 어젠다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스코틀랜드의 교육자와 국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일례로, 스코틀랜드의 국민들은 자국 교육의 명성이나 위상에 대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음. 스코틀랜드인의

62) EEF : Education Endowment Foundation은 2011년 설립되어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단체. 2013년에는 정부에 의해 What Works Center for Education 연구담당으로 공동 지정되는 등, 관련연구를 통한 정책 및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제공함

63) 켄 로빈슨(Ken Robinson) : 영국의 교육학자. 학생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TED 강연 ‘학교가 창의성을 죽인다(Do schools kill creativity)’로도 잘 알려져 있음

88%는 자신이 창의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고 답했고, 92%의 인구가 문화적 행사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87%가 공공재가 예술과 문화적 활동에 쓰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음.(Creative Scotland 홈페이지)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는 문화예술교육을 기존의 순수예술 Fine Arts (미술, 음악, 무용, 연극)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영상, 게임 등 다양한 창조 산업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성을 지님. 현재 “잠재성을 표출하고, 야망을 품으라(Unlocking Potential, Embracing Ambition).” 라는 10년(2014-2024)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임. 이렇듯 창의성이라는 철학이 교육기조로 설정되는 데에는 예술과 문화의 역할이 미래인재에게 필수적이라는 공동체의 믿음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음. 다음 세대가 예술과 문화를 통해 창의적 학습 기회를 높이는 동시에 반응형, 적응형, 지속형 학습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창의성과 예술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예술은 우리의 약점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의 공포를 마주하게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안의 인간성에 대해서 감상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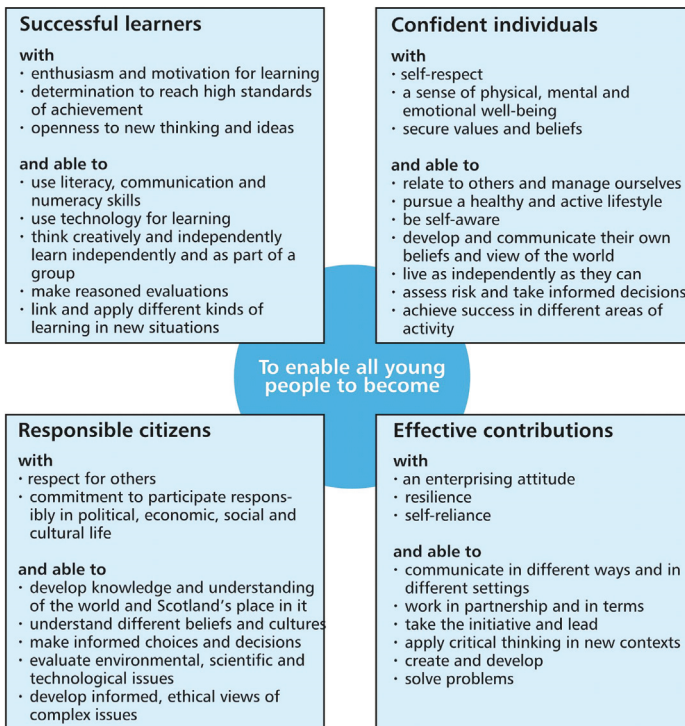
-Adrian Searle, UPEM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출판기획자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창의학습 총괄인 조안 파르는 협상이나 관계 구축의 과정에서의 동일한 언어(의미상)의 사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함.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활용하는데, 교육자들과 참여자들, 심지어 관련 인물들조차 종종 공감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함.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기관 및 인력들을 설득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사회의 일반적 눈높이에 맞춰서 개념을 단순화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충분히 풀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임.
- 이렇듯 명료한 언어적 구체화는, 호호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구체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육자, 교육자와 교육기관을 연결함. 또한, 프로젝트의 기획과 진행과정에

서 다양한 기관, 단체의 참여를 설득하고 공유하기 위한 도구가 되며, 프로젝트의 평가와 사정을 위한 기반을 제시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가 지향하는 4개의 목표와 방향

- ▶ 스코틀랜드의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1)성공적인 학습자 2)자신감 있는 개인 3)책임감 있는 시민 4)영향력 있는 공헌자로 나뉘며, 각 영역은 구체화된 역량과 어젠다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향점들은 모호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구체화한다.
-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조안 파르는 이와 함께 “새로운 겸손함 New Modesty”이라는 역량을 강조하는데, 이는 “겸손함과 균형을 갖춘 자신감”과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능력, 의지”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4가지 목표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10개년 전략보고서64>

Sitting under these ambitions our priorities for the next three years are:		
Ambition	Priorities	What does success look like?
Excellence and experimentation across the arts, screen and creative industries is recognised and valu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pport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across Scotland to develop and produce high quality work Create space for debate, critical thinking, risk and experimentation, encouraging connections across the arts screen and creative industries, making the most of digital technologies Establish and signpost clear pathways to enhance careers and support emerging talent 	<p>Scotland is home to many thriving and connected communities of artists, creative people and organisations, working in a diverse range of forms and genre. They are visible and recognised for the quality of their thinking, work and contribution to society.</p> <p>Artists and creative people are supported both financially and empathetically, so they have time and space to develop their practice and produce thoughtful, inspiring, high quality work.</p> <p>Research, development, critical thinking and self-reflection are all recognised.</p> <p>People can access many paths to pursue a career in the arts, screen and creative industries, at any stage of their lives.</p> <p>Information and support are available Scotland-wide, and emerging artists can quickly become connected to information, opportunities and to each other, as well as to a network of organisations to present their work.</p> <p>New technologies are celebrated as opportunities for everyone to produce and share ground-breaking work.</p>
Everyone can access and enjoy artistic and creative experi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sure that everyone can engage with the work we fund, wherever or whenever they are Strengthen the presentation, touring and distribution of work, through digital platforms and encouraging collaboration Foster an environment where participants, audiences and consumers value and can confidently engage with the arts, screen and creative industries 	<p>The arts, screen and creative industries are recognised as widespread and inclusive.</p> <p>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hey bring to our communities are understood and valued.</p> <p>People of all ages and from different types of communities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including language communities such as Gaelic and Scots, can have deep and meaningful engagement with arts and creativity.</p> <p>People can access arts and culture through widespread digital access, as well as live events and performance, on screen and in exhibitions.</p> <p>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that we support work collaboratively and imaginatively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people to engage and participate. They explore new ways and platforms for people to access artistic and creative work and help audiences to engage with a diversity of experiences. This will include providing explanations, interpretations and translations where appropriate.</p>
Places and quality of life are transformed through imagination, ambition and an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of crea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 in partnership with local authorities and others to help transform communities through creativity Support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creative hubs and networks that enhance visibility and value for communities Encourage socially engaged practice that stimulates public engagement and value 	<p>Arts, creativity and culture are recognised and celebrated by communities and policy makers across all parts of Scotland.</p> <p>Locally distinctive work is valued and encouraged.</p> <p>Closer collaboration with other national agencies including heritage, language, local authorities, artists, arts organisations and creative enterprises, leads to the best use of resources across urban and rural communities.</p> <p>Scotland's national culture in its broad sense is better understood, spanning contemporary practice, traditional arts in Gaelic and Scots and work inspired by Scotland's languages.</p> <p>Scotland welcomes cultural diversity and contributions from other languages spoken here, from Punjabi and Urdu to Polish and Arabic.</p> <p>Arts, screen and creative industries across Scotland are connected, more visible and create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p> <p>There is improve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how creativity generates wellbeing for everyone.</p>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10개년 전략보고서의 일부 발췌

64) 관련페이지:

http://www.creativescotland.com/__data/assets/pdf_file/0012/25500/Creative-Scotland-10-Year-Plan-2014-2024-v1-2.pdf

▶ “영상, 예술, 창의 산업을 위한 공유된 계획”이라는 부제처럼 프로젝트의 비전, 목표지향과 우선순위, 참여 전문가의 철학 등이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다.

▶ 예컨대 프로젝트의 “포부와 우선순위”의 항목을 보면, 향후 10년간 지향하는 5가지의 포괄적 목적들이 있고, 그 안에 처음 3년 동안의 우선순위들이 구체화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10년 계획은 스코틀랜드가 다음과 같은 곳으로 도약하는 데에 있으며, 각각의 목적은 최우선 과제와 성공의 예후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1. 예술과 영상, 창의 산업의 우수함과 실험과정이 인정받는 곳
2. 누구나 예술과 창의적 경험에 접근가능하고 즐길 수 있는 곳
3. 공간과 삶의 질이 상상력, 야망, 창의적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변화되는 곳
4. 아이디어가 리더십과 노동자의 다양하고, 숙련된 연결을 통해 실현되는 곳
5.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세계로 연결되는 곳

▶ 정리해보면,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의 창조적 역량 뿐 아니라, 삶의 질, 양극화의 해소, 교육과 문화향유의 민주화, 세계화의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의 취지와 방식, 성과 등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되어있으며, 온라인으로 누구에게나 공유 가능하다.

○ 결론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명료한 어젠다 구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기관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되는 가치를 명료하고 의미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인재상, 가치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임. 예를 들어 문체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각 지역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5일제와 더불어 시작되었기에 토요일에 관련한 ‘여가’의 개념이 언어적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만약 ‘여가’에 대한 가치를 각 운영기관 및 예술가(강사)들이 명료하게 갖지 못하고 시간적 측면에서 여가시간만을 염두에 두게 될 경우 예술이 과외의 활동, 잉여적 활동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을 것임.

Chapter 8

문화예술교육 평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박소연(안양대학교 교수)

평가란 일반적으로 “계획된 체계적 프로세스에 따라 제반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판단 및 개선에 활용하는 총체적인 활동(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으로 정의한다.

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의 본질을 마주볼 수 있는데,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프레임을 살펴보면 평가 주체가 평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에 거는 기대를 구체화할 수 있다. 즉, 각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각국이 문화예술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포착할 수 있다.

1. 한국과 영국, 평가에 대한 시선

- 한국은 국가 주도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펼쳐가고 있으므로, 평가에 대한 부분도 국가 수준에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이를 위하여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10년, 문화예술교육 통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는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실태 분석이 이루어짐.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2014년에 현황 조사를 실시함. 2016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개별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있음.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 씨앗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개별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는 범위를 넓혀 학교 전반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짐. 특히 2013년, 2014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변화 효과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졌음. 2016년부터 2017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실시함.
-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국가 예산이 안정적으로 대규모 투입되고 있으므로, 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해야 하는지,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하는 등의 평가에 대한 요구가 적은 편이며 평가결과에 대한 긴장감도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평가의 추진이 성과에 대한 판단보다는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평가는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적 측면의 효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였고, 주로 타 부처의 협력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는 등의 기초 자료로서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은 현재 평가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또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지향점에 해당하는 명확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문화예술교육이 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

고 소통과 공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음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방향은 문화예술교육이라면 옹당 지향해야 할 당위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성일 뿐, 사회적 합의 기준으로서의 어젠다로 기능하기에는 그 초점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이 효과를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을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음.

- 한편, 한국과는 달리 영국의 경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부분 개별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평가는 문화예술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여 의사결정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평가활동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증거(evidence)를 확보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영국은 사회적으로 평가에 대한 이해 및 신뢰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인데, 문화예술교육에서도 평가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모든 문화예술교육은 창의(creativity)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방향은 문화예술분야에 제한된 것이 아닌 영국의 전 교육을 포괄하는 지향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이러한 방향은 잉글랜드에서 추진했던 “Creative Partnership”, 스코틀랜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Creative Scotland” 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Creative Partnership은 2011년 이후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런 헨리(Darren Henley)의 제안에 따라 후속 추진되고 있는 “Cultural Education” 역시 여전히 창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창의를란 CCE(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⁶⁵⁾에 따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하고, 연결고리를 만들며, 혁신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접근을 취하는 보다 폭넓은 능력(Creativity is a wider ability to question, make connections and take an innovative and imaginative approach to problem solving)” 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창의의 정의보다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한 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창의를는 영국의 전 사회적으로 교육 및 개발의 어젠다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효과 평가 또한 창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책입안자, 실무자, 교사, 학생,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 이해

65) CCE(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 : <http://www.creativitycultureeducation.org/>

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로직모델에서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으므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효과를 확장하여 검토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도 적음.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이 창의뿐만 아니라 문해력, 학업성취도 향상 등을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과를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우리는 머릿속의 생각의 내용과 결과물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측정 가능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측정하겠다고 선택한 부분입니다. 측정 가능한 부분은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측정하겠다고 선택한 부분은 우리가 ‘가치’ 라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선택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찰리 텡스(RSA 창의학습부문 객원연구원)

II. 국가수준의 문화예술교육 로직모델을 활용한 사회적 합의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평가(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효과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무엇을 얻었는가(get)”와 이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do)”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것을 로직모델(logic model)이라 하는데, 프로그램 평가 시 우선 로직모델을 구체화 및 상세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평가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임. 즉,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을 하나의 개입(intervention)으로 보고 정교한 로직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영국은 사회적으로 평가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편인데, 이에 국가 수준 및 개별 프로그램 수준에서 로직모델을 설계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로직모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직적, 수평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get)”에 해당하는 효과를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통일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과평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로직모델에서 효과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곧 개입 설계의 든든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즉, 국가적 수준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설계하든 단위 프로그램 수준에서 학습활동을 설계하든, 창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점검하며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임. “과연 이 문화예술교육이 학습자들의 창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창의적 시민의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은 정책입안자와 교육자 모두에게 매우 유용할 것임.
- 프로그램의 기대효과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을 경우, 결국 평가는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 중심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곧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형적인 교육으로 설계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됨. 반면 프로그램의 기대효과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음.
-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CCL)⁶⁶⁾이 제시한 70-20-10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개발되는 것은 10% 만이 교육훈련(course)이나 읽기(reading)에 의한 것이고, 20%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70%는 경험에 의해 개발됨. 이를 문화예술교육에 적용하면, 문화예술 “교육” 만이 문화예술교육에서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문화예술과 관련한 학습커뮤니티 활동이 더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최고의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66) CCL(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 <https://www.ccl.org/>

III. 연구는 엄격하게, 현장은 유연하게!

- 영국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엄격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음. 문화예술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개별 사업자가 증명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신뢰를 인정받기도 어려움. 따라서 권위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적 연구 계획을 세우고 엄격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음.
- 예를 들어, RSA에서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효과분석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실증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음.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 증명을 위한 패넬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평가대상 프로그램은 The Power of Pictures(사진 및 일러스트를 활용한 수업이 문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The Craft of Writing(작문수업이 쓰기능력 및 아이디어 향상에 미치는 영향), Speech Bubbles(소그룹 드라마 수업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미치는 영향), The Young Journalist Academy(영화 및 뉴스제작이 문해력, 자신감, 협동심 등에 미치는 영향), First Thing Music(음악교육 프로그램이 문해력, 사회적·감정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효과는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됨.

■ RSA의 연구계획 “Learning About Culture⁶⁷⁾” (2019년 발표 예정)

- ▶ RSA는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 학교의 문화 교육의 역할(the role that cultural learning in schools plays in improving educational outcomes for children)에 관한 1) 구체적 ‘증거’ 확립 및 그 2) 방법의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그동안의 관련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행동과 성취도 향상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음을 연구 배경에 두었고, 또한 단순한 ‘증거’의 수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이 증거가 실제 실천(practice)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음

67) RSA의 ‘Learning About Culture’ 연구 관련 페이지

<https://www.thersa.org/discover/publications-and-articles/rsa-blogs/2017/10/learning-about-culture-launch>

▶ 연구 목표 및 순서

목표 1) 문화학습을 위한 강력한 증거 확립

(Build a stronger evidence base for cultural learning)

(1) 무작위 통제 실험 - (문화예술교육의) 영향력 및 접근 방법의 증거 수집

- 약 400개 학교의 8,500명의 청소년이 실험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5가지 문화 학습 활동에 참여
- 5가지 문화 학습 활동 : The Power of Pictures(사진 및 일러스트를 활용한 수업이 문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The Craft of Writing(writing course가 쓰기 능력 및 아이디어 향상에 미치는 영향), Speech Bubbles(소그룹 '드라마(drama)' 수업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미치는 영향), The Young Journalist Academy(영화 및 뉴스 제작 등이 문해력, 자신감, 협동심 등에 미치는 영향), First Thing Music(음악교육 프로그램이 문해력, 사회적·감정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2) 문화 학습 활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해

- RSA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실험에 참가한 학교와 후속 연구를 실시 할 예정. 특히, 본 실험은 결과 데이터 뿐 아니라, RSA가 문화 학습 부문 전반에서 정책 및 실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권장 사항을 제공 할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실험과 병행해서, RSA는 문화 학습 활동 (cultural learning activity)에 참여한 학교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목표 2) 문화학습의 증거 활용 방안

(Improve the use of evidence in cultural learning)

- RSA가 2017년 문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내)에서 진행하는 문화 학습(Creative Learning)에 대한 평가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각 문화 기관은 최근 5년 동안 평가 빈도가 증가했으며,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나 평가 방법의 이론(theory)의 부재, 스킬의 부족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표했음
- 이에 RSA는 Arts Council England와 ACE Bridge Organizations와 협력해 증거를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학교 및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문화 학습 제공자로 하여금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툴(tool)을 강구하고자 함. 즉, 학교와 문화예술기관들이 그들 스스로 효과 및 증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 한편,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평가를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의 초점을 맞추고 기관의 특성 및 개별 문화예술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평가 방법을 설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스코틀랜드의 예술단체 및 기관인 ‘에든버러 조각 워크숍(Edinburgh Sculpture Workshop)⁶⁸⁾’의 경우에는 자기성찰방식의 성찰기록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예컨대 학습자의 성장기록을 사례로 남겨 평가에 활용하고 있었음. 스코틀랜드의 왕립 라이지엄 극장(Royal Lyceum Theatre)⁶⁹⁾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창의학습부서(Creative Learning Department)에서는 참가자가 교육에 대한 반응을 스크랩북에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다음 강의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 있었음. 또한 국립 스코틀랜드 초상화 갤러리(Scottish National Portrait Gallery)⁷⁰⁾는 반응평가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현업복귀 후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고 있었음.

68) 에든버러 조각 워크숍(Edinburgh Sculpture Workshop) : 1986년에 설립된 예술가 운영 단체이며, 지속적으로 예술가의 창작 환경 및 지역사회의 학생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진행
홈페이지 <https://edinburghsculpture.org/>

69) 스코틀랜드의 왕립 라이지엄 극장(Royal Lyceum Theatre) : 에든버러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연극 극장
홈페이지 <https://lyceum.org.uk/>

70) 국립 스코틀랜드 초상화 갤러리(Scottish National Portrait Gallery) : 스코틀랜드 및 국제 예술 컬렉션을 소장, 개발, 연구 및 전시하는 에든버러 소재 국립갤러리 4곳 중 하나.
홈페이지 <https://www.nationalgalleries.org/visit/scottish-national-portrait-gallery>

■ 자기성찰방식의 성장기록평가 사례

- ▶ 기관: 에든버러 조각 워크숍(Edinburgh Sculpture Workshop)
- ▶ 평가방법: 성찰일지를 활용한 개별학습자 성장기록

- 대부분의 경우 평가는 평가대상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임. 그러나 이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평가대상의 본질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평가대상이 평가결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문제를 잠재하고 있음.
- 평가의 대상이 사람이고, 평가의 주목적이 개선(improvement)일 경우, 특히 평가대상이 적극적으로 평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신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 사정(self-assessment)하고, 그 결과를 자신이 가장 익숙한 형태로 레포팅하는 것임. 외부의 교사 혹은 평가전문가는 학습자의 레포트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축적하여 성장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에든버러 조각미술관에서는 학습자가 남긴 기록을 수집하여 자기성찰방식의 성장기록으로 남겨 이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이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만족도 중심의 평가보다 오히려 프로그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더욱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음.

Case Study — Kevin

"His growth mind set had changed"

Kevin is a pupil from Victoria Primary school who attended the Sculpture Workshop during programme 2016-2017. The information below is based on a transcription taken from an interview with Kevin's class teacher, Mr Barry Leonard and the Curator for Learning's, Alison Davidson.

Kevin was notorious for being badly behaved in school and his curriculum levels were below average for his age. Teachers encountered a number of issues with his attendance and work in class. He would often be involved in arguments with his class mates and not want to participate in lessons.

After attending the programme for a year there were noticeable changes in his behaviour, attendance and confidence. It was noted that his behaviour mind set began to shift as he looked forward to coming and asked when it was and never missed a workshop.

Kevin shared from the others of the programme which encouraged 'having a go' experimenting with materials and constantly discussing and sharing work with the class. At first he would look for permission from the teacher and the workshop leaders to be asked to do so. He didn't quite comprehend that he was allowed to experiment in this way. But as the year progressed he became more involved in the workshop.

In Kevin's opinion that Kevin had not started for as, and this developed his confidence, the teacher commented on how 'loved to go to' Kevin said. This also changed the attitude of the year as the teacher began to encourage Kevin to be a bit of an expert and to help to teach the others. The teacher noted that he was confident and happy to be more confident and thinks that the Sculpture Workshop programme helped develop this.

In one lesson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the class completed a sculpture based on the theme of 'a day in the life of a teacher'. Kevin took part in the lesson and was asked to make a sculpture. Kevin said that he was extremely proud of, he told his family, the school the following week in the next lesson and made another one which he brought into the next lesson.

Through observing Kevin during the workshop the teacher noticed how his confidence started to grow through in his literacy and creativity to write after the first workshop with the Kevin suggested that they go back to the classroom and learn more with the teacher. Kevin's growth began to show as he started to go things as, such as writing, then again. The teacher described it as being 'something like the growth record of a tree' changed. The teacher adopted his approach to teaching Kevin and the class as a 'growth record' of the class. Kevin's growth was noted. The teacher also encouraged the approach being creative, as he saw how the pupils responded well to seeing things first and then talking about them in a group before writing about it or doing more.

Curator for Learning Observations

During run the schools programme for the past five years it was extremely exciting to observe a pupil like Kevin. The programme had started rightly this and so that the first term asked more like a foundation course introducing the pupils to different ideas and materials such as wood, introducing in a more traditional sense to the class in the first session. It was during this time working that I noticed how changed and happy Kevin was. For the workshop I had set out their work along with some pencils, paper and tape and asked them to find a way of showing what they had made in their groups. I noticed how they had found their own way and had made a great job of it and was working with the rest of the group asking them to put different shapes that he was continuously asking to the group, the agreed condition and he was doing something that was great. Kevin, I think to do this, he was in control and working with the group and his confidence. As the month progressed it was remarked by many of the artists how interesting observing the work was, in fact after the study report open, observe what he was doing. The report was required monthly but in the middle of the programme and then Kevin said he was constantly trying different ideas and experimenting with the materials. During the next study working in the last week of the programme he made several sculptures from the clay and began working with the clay. Kevin (Figure 2) which he called his 'water tower' for the school space had the class had made.

It is clear that the pupils that make this type of programme allows for learning that he's always able to facilitate for schools.



Ⅳ.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 어떻게 가능할까?

- 평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선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평가결과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될 때만이 가능함. 평가는 활용을 전제로 한 유목적적 활동이므로 그 결과가 활용되지 않는 평가는 곧 의미 없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평가결과의 활용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가 평가결과 활용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게 됨.

“우리의 평가는 수치와 통계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치는 왜곡 역시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우리의 작업을 제대로 잘 보여 줄 수 있는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입니다.”

- 조안 파르(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창의학습 총괄)

- 영국은 문화예술교육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문화예술 관련 단체 연합체인 CLA(Cultural Learning Alliance)에서 발간한 “Imagine Nation: the value of cultural learning”은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 Scotland의 YMI(Youth Music Initiative)에서 발간한 보고서 역시, 복잡한 연구결과가 아닌 Key Finding의 형식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현장에 배포함.



Key Research Findings

These findings are based on a survey of 10,000 young people and their parents, and a series of focus group discussions with young people and their parents, and a series of focus group discussions with young people and their parents.

Key findings from the survey are:

1. Participation in structured arts activities can increase cognitive abilities (75%).
2. Learning through arts and culture can improve attainment in Maths and English.
3. Learning through arts and culture develops skills and behaviour that lead children to do better in school.
4. Students from lower income families who take part in arts activities at school are less likely to drop out of school.
5. Employment of students who study arts subjects is higher and they a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6. Students from lower income families who engage in the arts at school are more likely to achieve.
7. Students from lower income families who engage in the arts at school are 20% more likely to vote as young adults.
8. Young offenders who take part in arts activities are 50% less likely to re-offend.
9. Children who take part in arts activities at home during their early years are more likely to read and do Maths at age 10.
10. People who take part in the arts are 30% more likely to report good health.

Read the Key Research Findings in full at: www.culturallearningalliance.org.uk/research

The arts and education: about cultural learning

The arts have the power to change and shape young people's lives.

The knowledge, skills and experience made possible by the performing and visual arts, film, museums, libraries, heritage and exploring the cultural environment, are essential to young people's development.

Cultural learning takes place in schools and colleges, and informally in the wider world, creating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express their ideas and form their values.

Through cultural learning, young people are encouraged to explore their culture, and to express and respect its contribution to the arts and culture of the future.

This publication focuses on the four values of Cultural Learning:

- ~ Social
- ~ Educational
- ~ Economic
- ~ Personal

Learn More About Cultural Learning Here

Imagine Nation: the value of cultural learning 연구 결과집

“CLA 홈페이지에 유의미한 뉘앙스가 정확한 정보에 대한 증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예술교육의 가치에 관해 방대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특히 정책관련자들은 평가보고서를 모두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요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요약서가 출발점이 되어서 문화부와 교육부의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리지 크럼프(문화학습연합회 디렉터)

- 영국의 현장에서는 평가연구 자료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기초하고 있음. 현장에서는 CLA(Cultural Learning Alliance)에서 발간한 “Imagine Nation: the value of cultural learning”의 주요 결과를 정책입안자 혹은 의사결정자를 설득에 활용하고 있음. 명료하지만 자칫 단순화된 평가결과에 대해, 현장에서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임.
- 한국은 영국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평가 연구를 적지 않게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임. 연구 결과를 지나치

게 어렵고 복잡한 방식으로 제시해왔으므로, 현장에서 관계자 및 실행가, 평가전문가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이에 향후 기존의 각종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알기 쉬운 방식으로 현장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사전의 치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평가(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전문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기획단계서부터 다 같이 논의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된 로직모델의 설계를 통한 평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느끼는 영향이라는 것이 고유하고 내재적인 부분이라, 실무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이러한 지점은 한국과 영국, 양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적 취향 따라 펼치고 있지 않은 만큼, 공공의 후원과 지원을 받는 조직 및 기관들은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공통의 목표와 효과가 있을 것임. 따라서 이러한 평가 프로세스가 개인 및 기관을 평가하고 있는 느낌을 벗어나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대화 프로세스로 생각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함.

나가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책연구팀

-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추진된 이번 한·영 문화예술교육 교류는 양 국의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음.
 - 한국은 그간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통해 법령과 제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양적인 기회를 확대한 성과에 이어, 이제는 새로운 정책추진체계와 질적 제고를 위한 다음 단계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영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오랜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나, 최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감소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이 높은 상황임
 - 양 국 모두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국의 경험과는 다른 사례들과 전략들을 탐색하며 그 과정을 통한 새로운 자극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서 관심이 일치했음
- 이에 따라 양 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계, 문화예술 관련기관, 학교 및 교육기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류단을 구성하고, 5월은 한국(서울)에서, 11월에는 영국(런던, 에든버러, 플리머스)에서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논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공통적 관심 및 국가별 시사점 등을 검토해왔음
 - 교육에서 예술가의 역할과 방법론,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혹은 창의적 학습이 지니는 맥락과 파트너십, 이에 대한 효과와 평가 방법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진정한 예술교육의 실천, 다양한 파트너십과 이를 구축·유지하기 위한 신뢰관계, 명료한 목표를 염두에 둔 정책과 실행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문화예술교육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들을 확인하였음. 본 보고서의 각 챕터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주체, 실행방식, 협력방향 등의 세부 주제를 설정하여 한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검토하였음.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검토내용들을 상기하며 향후 우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추진 측면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정책의 개념이나 실행을 위한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음. 개념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현장 혹은 실행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 교육현장의 다양한 해석은 곧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 대상, 공간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기도 함.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한 주체의 참여 동기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명료한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앞서 사례 및 분석내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개념적 고민과 이를 공유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뿐 아니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인지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적극적임. 일례로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에서는 ‘창의성’ 개념에 대해서 문화분야와 교육분야의 공동 논의를 거쳐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개인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 열린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실수를 통해 배우고 상상력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구체적인 역량으로 정리하여 문서화하고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목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나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은 부족한 편임. 방향과 개념의 명확화라는 것은 단일하고 협의적 차원으로 관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명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들을 파악하고 관점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개념과 실행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상호이해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다 활성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공유됨으로써 협의 결과가 축적되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문화예술적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공간일 경우 문화예술적 경험을 보다 확장해 나갈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술적 역량을 지닌 매개자가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 외에도 지역의 문화예술 기관으로 학교가 찾아오는 형태의 문화예술교육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정규교과과정을 학교 밖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은 운영예산의 한계나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영국은 이러한 두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학교와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부분이 발견됨.

- 에든버러의 Sciennes Primary School은 지역 연극단체 및 오페라 공연장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협력수업으로 참여하거나 학교가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다양한 사례에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문화예술 관람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넘어서 지역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들로 문화예술적 경험을 확장시키고 있음. 테이트 모던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자(예술가)와 참여자(수혜자) 간의 교류와 참여의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일종의 선순환적인 소통과정으로 구성하고 있음. 또한 교육(education)이라는 용어보다 참여(participatory), 실천(practice), 배움(learning) 등으로 의미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더 나아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고 추진하는 열린 프로그램(테이트 익스체인지)으로서 지역의 주요한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서 기관의 공간을 활용하고 기획력을 발휘하고 있음.
- 런던에 위치한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의 독특한 점은 앞 장에서 언급되었듯이 백스테이지 워크웨이(Backstage Walkway)임. 극장이라는 예술기반시설이 문화예술교육 측면에서 지니는 강점을 단지 공연의 기획·리허설 과정·공연 실행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 특히 무대와 의상, 소품 등이 제작되는 과정까지 포괄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극장의 교육적 강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확장함으로써, 극장의 공간을 무대 뒤편, 무대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공간, 의상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공간, 소품을 만들고 보관하는 공간을 과감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매우 잘 구성된 교육공간으로 기획·구축하고 있음. 이는 연극이라는 예술분야가 지니는 교육적 범주를 확장하며 극장이라는 공간적 자원 활용을 최대화함으로써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다 새롭고 풍부한 경험으로 나아가게 함.
- 스코틀랜드의 국립 초상화 갤러리(Scottish National Portrait Gallery), 왕립 라이지움 극장(Royal Lyceum Theatre), 에딘버러 조각 워크숍(Edinburgh Sculpture Workshop) 등 이들 문화예술기관들은 각각 국립형, 도시형, 마을형 문화예술기관으로, 학교와 연계를 통해 연령 및 교급에 맞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특히 참여대상이 지니는 특성이나 지역적 이슈를 연계한 프로그램 주제를 설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이번 교류를 통해 방문한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예술교육 매개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각 문화예술 기관들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그러나 지역 학교와의 연계방식의 하나로 교사 대상의 연수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 스코틀랜드 초상화 갤러리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활용한 연수(Creativity summer school for teachers)를 통해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정해진 연수기간 외에도 사후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교육에의 활용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는 등 교사들과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Plymouth School of Creative Arts)의 경우는 문화예술에 교육의 중점을 둔 특수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학교와 지역의 기관들(대학, 문화예술기관, 지역 내 위원회 등) 간에 얼마나 유기적으로 광범위한 연계협력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PSCA)는 교육이 오랜 기간 동안 한 학생의 인격 형성에 주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며 유아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연결하고 생애주기를 염두에 둔 교육 가치에 따라 설립되었음. PSCA가 소재한 지역은 영국 서남쪽의 작은 도시이지만 지역 주민의 교육적 관심이 높고 학교 교육과 예술기관과의 연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5가지의 교육목표, 즉 ‘나를 위한 생각(thinking for myself)’, ‘함께 배우기(learning together)’, ‘불확실성의 포용(embracing uncertainty)’, ‘놀이와 실험(play and experimenting)’, ‘의도적인 연습(purposeful practice)’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학교 건물은 구조적으로도 1층 벽면을 유리로 세워 학교 안의 공간과 학교 밖의 공간 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되었고, 기능이나 활용 측면에서도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혹은 종교적 행사에도 사용됨.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활동을 세상과 분리된 학습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학습과 정으로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됨
- PSCA는 지역 예술대학과 연계하여 커리큘럼을 함께 고민하며 테이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관련 기관(대학, 문화예술기관)과 교육내용적 측면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음. 또한 부모, 교사,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PTFA(Parent, Teachers and Friends Association)도 지역 내 다른 학교 및

단체와 기관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며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문화예술 교육 관련 전문행정기관이 없는 영국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위해 브리지 기관(bridge organization)을 운영하고 있음. 브리지 기관은 2010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기관과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출범시킨 기관들임. 브리지 기관은 학교가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네트워킹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매개 역할을 담당함. 브리지 기관은 지역에서 학교와 기관, 재단과 기관 등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교육 도전과제(Culture Education Challenge)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는 학교가 지역사회 커뮤니티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지역사회는 학교가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실험과 노력들을 공유하고 있음.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를 둘러싼 지역 공동체의 생태계 구조는 매우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이를 곧바로 다른 학교 및 사회에 적용하기도 쉽지 않음. 그러나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Place based Arts Education)을 위한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때에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전해 줌

○ 2018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3대 추진전략의 첫 번째는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임. 문화예술교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을 고려할 때, 수요자에게 보다 밀착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화가 요구됨. 이는 곧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추진체계와 협력관계 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축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맞닿아 있음. 지역의 규모와 정책 추진의 배경, 지역 내 기관들의 역할과 예산 운용,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과 해당 공공기관들의 구조 및 역할 등에 따라 지역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게 될 것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 설립자의 의지, 그에 맞는 학교의 물리적·기능적·교육과정의 구성, 이에 대한 지역의 이해와 협력,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민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체계 등 플리머스 창의예

술학교가 지닌 특성들은 공통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요인들은 단지 학교 교육을 위한 자원 확보나 편의성 증대 등의 관점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구성원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커뮤니티 내 다양한 자원 연계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진정한 예술교육, 학교와 지역·기관과의 파트너십, 예술교육의 가치와 평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번 한·영 교류의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의 논의 주제는 ‘신뢰’ (Trust)였음.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가, 교사, 학생, 학교, 기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 논의가 모아짐.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와 믿음, 예술가 등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의 전문적 역량과 이에 대한 존중, 교육현장에서 교육자와 참여자 간의 친밀성과 소통에 기반한 이해 등이 문화예술교육에 의미를 부여하며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임. 또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나누는 것, 즉 다양한 의견이 협력적으로 모아지고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는 과정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됨을 공유함
- 한국과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각기 다른 배경과 방향성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리고 양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 지역 및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상향식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하거나(한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다시 한 번 촉발하고자(영국) 하는 변화의 계기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번 한·영 교류에서 각각의 사례 및 논의과정을 진행하며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위해 점검해야 할 부분과 문제인식의 지점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됨. 현재 한국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음. 10여 년간 추진해왔던 정책방향과 사업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5년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성을 수립하였음. 지역분권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되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방식과 콘텐츠를 실험하고자 함. 이번 한·영 교류를 통해 얻은 시사점이 이러한 변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부록

[부록 1] 5월 라운드테이블 현장

[부록 2] 11월 라운드테이블 현장

[부록 3] 주요 관련 기관, 단체

[부록 4] 함께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부록 1]

5월

한국-영국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현장

5월 한국-영국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은 한국과 영국의 협력사업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논의의 장으로서 양국의 문화/예술교육, 창의학습 정책, 맥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 이해 심화 및 앞으로의 공동논의 주제에 대하여 도출하는 시간이었다. 보다 심도 있는 공유와 논의를 위하여 4일간(2017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의 비공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과 문화예술교육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다.

□ 주요일정

일자	내용
5월 23일 (화)	· 라운드 테이블 1 : 양국의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파트너십, 예술가의 정체성 관련 라운드테이블 진행
5월 24일 (수)	· 현장방문 : 국립중앙박물관 : 교육프로그램 연계 투어 및 교육부서 관계자 미팅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연계 국제심포지엄 참석
5월 25일 (목)	· 현장방문 : 세월초등학교 방문 및 관계자 미팅 : 국립현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연계 투어 및 교육부서 관계자 미팅
5월 26일 (금)	· 라운드 테이블 2 :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평가와 향후 논의 관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진행

I. 한-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1) 한-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1

- 세션 1 주제 : 문화와 교육 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한 부문별 자아개선
 - 목적 : 예술 및 창의 교육 내 진행되고 있는 자아개선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문화 기관과 교육기관 사이의 파트너십 설계하기
- 세션 2 주제 : 교육자와 학습자의 정체성
 - 목적 : 예술가로서의 교육자와 학습자의 역할 리모델링하기
- 일시장소 : 2017년 5월 23일(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회의실
- 세부 프로그램

구분	내용	발제자 ■ 토론자
인사말	- 한-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소개 (추진방식 및 배경 공유)	홍유진(진흥원), 마크 론테스버러 (RSA)
사전 브리핑	- 라운드테이블 세션 1 주제 및 목적에 대한 사전 설명 (주제 관련 한-영 양 국의 현황 공유)	홍유진(진흥원), 찰리 팀스(RSA)
발제 (세션 1)	- 문화교육 도전 프로그램의 관점과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런던 파트너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 트 소개	스티브 모펏 (뉴 다이렉션, 대표)
	-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흐름에 대하여 (신뢰구축과 파트너십 유형 · 사례 분석)	황지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인하모니’의 종단적 평가를 통해 얻은 교훈(파트너 십이 교육과정의 공동개발, 신뢰구축 및 가족관계를 통해 어떻게 발달하였는가를 포함하여)	로드 스킵 (‘리버풀 필하모 닉’, ‘인하모니 리 버풀’, 예술감독)
	- 예술가가 우리학교에 찾아옵니다 (학교 안 예술교육에서 예술강사와 학교(교사)와의 협력적 파트너 십에 대하여)	류해석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휴식	- 휴식	

질의응답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션 1의 4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토론 - 토론 내용 정리 및 세션 1에 대한 소결 	마크 론데스버러, 찰리 팀스(RSA)
사전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드테이블 세션 2 주제 및 목적에 대한 사전 설명 (주제 관련 한-영 양 국의 현황 공유) 	마크 론데스버러 (RSA)
발제 (세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학습 시대의 예술 교육 (인공지능의 출현은 교육의 시작부터 평가까지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 존재, 예술가의 개념에 유용성을 제고하여 예술교과의 교수와 학습, 학교에서의 문화학습의 위치, 문화 분야의 어린이 교육에 대한 영향 및 의미 파악) 	데이브 스트러드워 (폴리머스 창작예술학교,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의 시대, 춤추기는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술교육, “내용”에서 “맥락”으로의 고려)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를 위한 촉매 (교육환경에서 전문적인 창조적인 학습자로서 예술가의 가치) 	안나 커틀러 (테이트 러닝디렉터)
질의응답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션 1의 4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토론 - 토론 내용 정리 및 세션 1에 대한 소결 	마크 론데스버러 찰리 팀스(RSA)

2) 한-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2

- 세션 3 주제 : 평가 및 영향 측정
 - 목적 : 교육가, 예술가, 고용주와 정책입안자들이 문화 학습과 관련된 결과 및 과정 측정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돕기
- 일시장소 : 2017년 5월 26일(금)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회의실
- 세부 프로그램

구분	내용	발제자 ■ 토론자
준비활동	- 준비활동	마크 론데스버러 (RSA)
	- 라운드테이블 세션 1,2 과 한국문화예술교육 현장 방문 및 국제 심포지움 참석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 공유 - 위의 경험을 통하여 라운드테이블 세션3 생각해 보기	마크 론데스버러 (RSA)
사전 브리핑	- 라운드테이블 세션 3 주제 및 목적에 대한 사전 설명 (주제 관련 한-영 양 국의 현황 공유)	찰리 팀스(RSA)
발제 (세션 3)	- 스코틀랜드의 Creative Learning Plan(창의적 학습 계획)에 대한 평가로부터 얻은 통찰	조안 파르 (크라이티브 스코틀랜드, 창의 학습 책임자)
	- 한국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2013~2015년 사례를 중심으로)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수)
	- (영어)교육과정과 자격검토에 유용한 문화분야의 소 집과 동원 경험과 Gulbenkian Inquiry 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예술단체의 역할에 대한 합의창출 과정에 대한 이해	리지 크럼프 (문화 학습 연합, 책임자)
휴식	- 휴식	
질의응답 및 토론	- 세션 3의 3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토론 - 토론 내용 정리 및 세션 3에 대한 소결	마크 론데스버러 찰리 팀스(RSA)
집중 토론	- 라운드테이블 세션 1~3의 주제로 그룹 3개를 지어 집중토론 진행	참석자 전원
	- 집중토론 마무리 및 그룹별 논의 결과 발표 및 공유	참석자 전원
마무리	- 향후 한-영 협력 연구를 위한 주제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	마크 론데스버러, 찰리 팀스(RSA)

○ 관련 사진



II.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방문

- 한국-영국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한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창의학습 관련 전문가, 실행가, 연구자들이 다음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다양한 층위의 대상을 아우르는 유물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 동시대의 예술과 그 흐름, 방법론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국립

현대미술관

-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의 예술기반 협력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경기 양평 세월초등학교

○ 관련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방문



경기 양평 세월초등학교 방문

[부록 2]

11월

한국-영국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현장

5월 한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11월 영국에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음. 5월에서의 논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의견 및 지식공유의 장이 펼쳐졌다.

한 층 심화된 논의와 더불어 영국의 문화예술교육/문화학습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플리머스, 에든버러) 방문과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양국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구자들이 자국과의 정책, 현장 비교를 통하여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주요일정

일 자	내 용	
11.27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SA 방문 (전문가 워크) : 양국의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 대표단의 평가에 대한 발표를 포함하여 주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문 :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 교육프로그램 연계 투어 및 교육부서 관계자 미팅 	
11.28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te(테이트) Modern 방문 (전문가 워크숍) : 한국의 예술강사, Tate Exchange 활동 예술가의 프로그램 소개, 발표 진행 : Tate Exchange의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논의주제 관련한 워크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일부) 런던→에딘버러 이동 / (방문단 일부) 런던→플리머스 이동 	
11.29 (수)	플리머스	에딘버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ymouth School of Creative Arts(플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방문 : 학교 투어 후, 학교와 지역기반 문화 예술교육 및 문화예술 정책,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워크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iennes Primary School 방문 : 관계자 미팅 및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tive Scotland offices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사무소) 방문 : 청소년 주도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 예술 정책,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워크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eston Community Academy(Primary) 방문 : 관계자 미팅 및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nburgh Sculpture Workshop : 교육 관계자 미팅 및 투어
11.30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atre Royal, Plymouth 방문 : 교육 관계자 미팅 및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ttish National Portrait Gallery 방문 : 교육 관계자 미팅 및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ymouth College of Creative Arts 방문 : 교육 관계자 미팅 대학교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yal Lyceum Theatre 방문 : 교육 관계자 미팅 및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일부) 에든버러 → 런던 이동 / (방문단 일부) 플리머스 → 런던 이동 	
12. 1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드테이블 진행 (장소 : RSA House) : 플리머스 및 에든버러의 방문을 통해, 정책이 영국 각 지역의 교육에 실행된 방법에 대한 토론 진행 및 양국의 결과보고서(예정) 관련 상호 논의 추진 	

I. 한-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1) 한-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1

- 논의주제 : 문화학습에서의 증거(근거)와 평가를 바탕으로 한 실무자 역량 구축
-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7일(월) / Prince Philip Room, RSA
- 세부 프로그램

구분	발표 주제	발제자 ■ 토론자
발제	- 증거(근거)와 변호(옹호) - ‘누가 정말로 듣고 있는가?’	Lizzie Crump (Cultural Learning Alliance, CLA)
	- 경험적 평가 설계와 문화예술교육 - 챌린지	Nikki Shure, Igraine Rhodes, (Education Endowment Foundation)
	- 참여지표 및 Local Cultural Education Partnerships 의 평가	Andrew Mowlah (Arts Council England)
휴식	- 휴식	
발제	-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설계와 방향	Yu Jin Hong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
	- 한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프레임 - 효과지표체계의 구성과 활용	So Youn Park (안양대학교 교수)
질의응답 및 토론	- Roundtable discussion	전체

- 관련 사진



2) 한-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2

- 논의주제 : 각각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도전과제 공유 및 해결책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 더 나아가 진정한 실천방법에 대한 방향성 도출
-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8일(화) / Tate Exchange, Tate Modern
- 세부 프로그램

구분	발표 주제	발제자 ■ 토론자
발제	- 환영사 및 테이트 익스체인지에 대한 소개	Anna Cutler (Tate)
	- 참여적 실천에 대하여	Clare Twomey (Artist)
	- 진정한 실천과 예술강사 프로그램	Kwangyul Oh (미술/ 만화애니 예술강사)
휴식	- 휴식	
질의응답 및 토론	- 진정한 참여와 도전에 초점을 맞춘, 사전 확인 과제에 대하여 60초간 발표	전체
	- 진정한 실천과 관련한 소그룹 논의	
	- 해결책에 관한 발표	

- 관련 사진



3) 한-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3

- 논의주제 : 지역 수준에서의 리더십 및 실천의 발전방안
-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9일(수) / PSCA
- 세부 프로그램

구분	발표 주제	발제자 ■ 토론자
현장 방문	- Dave Strudwick 교장선생님의 Tour of the school 학교투어	
발제	- HEIs와 학교와의 파트너십-질적 발전	Andrew Brewerton (Plymouth College of Arts)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역적 전략 - 브릿지기관 및 Local Cultural Education Partnerships	Jonathan Clitheroe (Real Ideas Organisation)
휴식	- 휴식	
발제	- 학교 예술교육, 지역과 어울린다. : 경기도 교육청의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중심으로	Hae Suk Ryu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질의응답 및 토론	- Roundtable discussion	전체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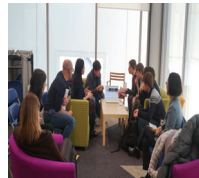


4) 한-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4

- 논의주제 : 정책 구성, 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탐색
-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9일(수) / PSCA
- 세부 프로그램

구분	발표 주제	발제자 ■ 토론자
발제	“Time To Shine” 소개 - 스코틀랜드의 청소년 문화 예술 전략	Colin Bradie (Creative Scotland)
질의응답 및 토론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청소년 자문 패널과 토론	전체
발제	- 한국의 문화예술기관, 청소년·청년의 참여와 활동에 대하여	Jiyoung Hwang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한국청소년들의 목소리 듣기 : 복제된 자기소개서 혹은 정체성 춤추기 : 청소년들의 관심사, 흥미를 어떻게 예술의 방식으로 포함시키며 창의력 개발에 기여할 것인가(꿈다락 프로젝트 소개)	Hwanjeong Jae (한국예술종합학 교 교수)
질의응답 및 토론	- Roundtable discussion	전체

- 관련 사진



5) 한-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5

- 논의주제 : 한-영 교류연구에 대한 결론 도출하기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일(금) / Ronney Room, RSA
- 세부 프로그램

구분	발표 주제	발제자 ■ 토론자
토론	- 에든버러, 플리머스 방문 및 인터뷰 내용 및 시사점 공유	전체
휴식	- 휴식	
질의응답 및 토론	- 남은질문, 아이디어 등에 대한 논의	
	- 보고서의 내용과 구조를 제안하는 프리젠테이션	Mark Londesborough (RSA)
	-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및 항목에 대한 논의	전체

- 관련 사진



II. 영국 문화예술교육/창의학습 관련 현장방문

-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의 방문 및 관계자와의 논의 진행과 더불어 정책적,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창의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한국 전문가단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플리머스, 에든버러를 방문하였음.
-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인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을 방문. 대표극장으로서의 역할과 신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립극장의 창의학습 프로그램 대한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음.
- 플리머스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의 예술기반 교육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다음의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전문가와의 논의를 진행하였음.
 - 영국의 아트마크(Artsmark)와 브리지 기관의 역할 및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오레스톤 커뮤니티 아카데미(Oreston Community Academy)
 -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창의학습의 기회 및 장을 제공하고 있는 플리머스 왕립극장(Theatre Royal Plymouth)
- 에든버러에서는 정부단위, 지역단위, 학교단위를 관통하여 작동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문화예술 및 교육정책을 현장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관을 방문,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가졌음.
 - 스코틀랜드의 탁월함을 위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예술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즈 초등학교(Sciennes Primary School)
 - 지역의 창작공간에서 펼쳐지는 예술가의 예술교육을 살펴볼 수 있는 조각 워크숍(Edinburgh Sculpture Workshop)
 - 지역사회 안에서의 예술의 공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초상화 갤러리(Scottish National Portrait Gallery), 왕립 라이지엄 극장(Royal Lyceum Theatre)

○ 관련 사진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방문



플리머스 문화예술교육/창의학습 현장 방문



에든버러 문화예술교육/창의학습 현장 방문

[부록 3]

한·영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영국의 주요 관련 기관, 단체

I. RSA (왕립 예술 협회)

- 기관명 : 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
- 기관미션 :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계몽적인 사고와 협력적 행동을 위한 환경의 조성
- 설립 목표 및 주요내용
 - 1754년 설립된 런던 기반의 영국 학문간 융합 연구기관
 - 아이디어와 다양한 실천을 통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데 목표를 두며,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21세기의 개발을 위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
 - RSA와 여러 공동체의 협력으로, 개인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기회를 구축하여 성숙한 삶과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환경조성, 네트워크 형성 및 다양한 기술의 활용, 아이디어 개발, 홍보와 공유 등을 담당
 -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1980년에 처음 사용하는 등, 인간 지식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는 기관으로 평가 받음. 연구 활동 및 컨퍼런스 뿐 아니라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대중과 소통함
- 주요 프로젝트 및 연구
 - 1) 공공서비스 및 지역사회 (Public Services & Communities) : 각 개인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
 - 2) 경제관련, 기업 및 제조 (Economy, Enterprise & Manufacturing) : 기업, 제조업체 및 기업가를 모아 기업이 정신,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제조를 이해하고 증진하며 다음 세대의 사회적 책임을 지닌 디자이너와 기업을 창출하고자 함
 - 3) 창의학습 및 발전 (Creative Learning & Development) : 현대 사회의 복잡성

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불평등, 기술적 문제 등의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창의성 격차(creativity gap)'가 생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명확하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학습 및 개발 방식을 선도함으로써 '창의성 격차'를 줄이고자 함

- 4) 창의학습자(Creative learners) : 영유아부터 어른까지 티칭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구성하여, 이들의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고자 함.

II. Tate (테이트)

- 설립목표 및 배경 : 테이트 (Tate)는 영국미술과 국제 현대/동시대 미술을 선보이는 영국의 미술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주요 후원기관
- 테이트 러닝 (TATE LEARNING)
 - 테이트 4개의 미술관은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차별화된 특징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학습' 분야는 테이트의 핵심적인 미션임. 안나 커틀러가 총 책임을 맡고 있으며, 4개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학습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총 60명의 멤버들이 있음
 - 주요 내용 : 입문자, 일반 방문자 및 숙련 된 전문가 등 다양한 범위에서 그들 모두 예술에 대한 지식, 이해 및 즐거움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
- 테이트 러닝(TATE LEARNING) 주요 프로그램
 - 1) 학교와 교사(Schools and Teachers) : 갤러리 공간은 Tate 학교 프로그램의 중심 공간. 예술 작품에 둘러싸인 갤러리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 할 것을 기대. 학교 프로그램에는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의 갤러리 방문을 장려하고, 보다 활동에 참여할 것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Schools' programme', 'Teachers' programme'이 있음
 - 2) 청소년 프로그램(Young People's Programmes) : 테이트 콜렉티브(Tate Collective)*는 15~25세의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테이트의 전시회를 통해 사회, 문화 및 창조적 탐구를 제공.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학습 기회를 제

공하고자 함

- 3) 영유아와 가족(Early Years and Families) : Tate는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활동, 스튜디오 워크숍, 이벤트 등을 제공함. 역사적, 현대적, 학제적 예술의 접근 방법을 소개하며, 관객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개방적인 학습을 제공
- 4) 공공 프로그램(Public Programme) : 성인을 대상으로 예술, 예술가,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이야기 해보는 이벤트 제공
- 5) 지역 커뮤니티(Local communities) : Tate는 지역 단체와 협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 및 예술 접근성을 넓히고자 함. 테이트 브리튼 및 모던은 Southwark, Newham 및 기타 런던 지역의 성인 참여 및 특히 정신 건강 지원, 노인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및 문화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 테이트 리버풀은 노스웨스트 지역의 예술에서 사회경제적, 지적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모색. 테이트 갤러리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그룹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음
- 6) 테이트 익스체인지(Tate Exchange) : 테이트 익스체인지는 연례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세계적인 예술가와 예술계를 넘어서는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60개의 파트너(대학, 자선단체, 예술계 내외부의 활동하는 지역 사회단체 포함) 그리고 관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지난 60년간의 예술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발견과 예술이 무엇인지,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워크숍 및 활동, 토론 진행. 테이트익스체인지는 2016년 9월 테이트모던과 리버풀에서 시작되었으며 향후 모든 갤러리로 확장 될 예정임. 2017-2018년은 Production 이라는 주제로 탐구하는 과정을 가짐.
- 7) 디지털 러닝(Digital Learning) : 통학 학습의 한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을 사용하여 탐구하도록 함. 갤러리 및 온라인 활동을 혼합하여 방문객이 예술을 보고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이벤트를 포함함
- 8) 설명(Interpretation) : Tate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전시 작품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갤러리 내 공간 마련. 또한 방문객들이 전시 된 미술 작품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가이드 및 자료 개발을 하고 있음
- 9) 테이트 리서치 센터 : 배움 ('the Tate Research Centre: Learning')
 - 목표 : 연구 및 지식 교환을 촉진하고 미술관에서의 학습 실천 방법 및 방향을 알리고자 함

- 현재까지 갤러리 교육과 학습은 연구가 부족한 분야였으나 미술계에서 학습의 본질과 가치를 넘어서는 문화 분야 내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동시에 학습 및 교육과 큐레이터 프로그램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박물관의 향후 역할에 관한 토론이 영국뿐 아닌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음. 이에 테이트 리서치 센터는 리서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및 심포지움 개최, 연구 중심의 세션 등을 개발. 또한 미술관 학습과 관련된 연구 뉴스 및 정보를 알리고, 연구를 위한 포럼을 공유 및 개발 중에 있음
- 주요내용
 - 테이트 4개 장소 및 온라인에서의 갤러리 교육과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시행.
 -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장소 및 환경에 예술작품을 관련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인 'Art Maps', 테이트 모던을 방문하여 미술관을 둘러보거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예술을 만드는 일을 하는 'Looking for Change' 등이 있음

III. Creative Scotland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 설립 목표 및 배경 : 스코틀랜드의 모든 지역에서 예술, 영상 및 창조 산업을 지원하는 공공 단체. 스코틀랜드의 예술분야에서 일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훌륭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
- 주요 정책 및 연구
 - 1)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10개년 계획(Creative Scotland's 10-year plan)」
 - 설명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2014년 이후 10년간의 비전을 담은 보고서. 기관 소개 및 목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주요 업무 주제(THEME) 4가지 제시: Creative learning, Equalities and diversity, Digital, Environment
 - 그 외 펀딩, 협력, 개발 등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제시하고,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십 소개, 시스템, 정부 프로젝트 등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소개가 수록되어 있음
 - 2) 「2016-17 스코틀랜드 문화예술 전략 보고서(Creative Scotland Arts Strategy 2016-17)」
 - 발간개요

· 발 간 일 : 2016.8.10

· 발간배경 : 영국 전역의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년 주기로 발간

- 연구개요

· 연구목적 : 무용, 문학, 출판, 음악, 연극, 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포진되어있는 예술가와 예술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 기회 제고

· 연구배경

- ① 스코틀랜드는 문화예술분야를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문화예술 실행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 ② 또한, 문화예술분야 외 사회 영향력 있는 주요인사(기금모금 전문가, 변호사 등)의 유입 확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 집단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구체적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체계화된 문화예술 전략기획의 필요성 인식

· 기대효과

- ① 문화예술전략을 통해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를 견고히 하고,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사회, 문화, 경제 분야의 발전 제고
- ② 스코틀랜드 정부가 문화예술을 사회/경제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기대
- ③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접근성 제고 및 광범위한 담론 기회 확장

○ 주요내용

- 예술가, 문화기획자, 예술기관, 일반 대중 등 문화예술분야의 각 주체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성 및 구체적 접근방법 제시

○ 주요 프로젝트

- 1) Artistic and Creative Review Framework : 정기적인 기금 조직과의 업무 협업을 통해 업무의 예술적이며 창조적인 품질에 관한 열린 대화를 창출
※ “Is this the best it can be?” : 예술 및 창의 학습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툴킷.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와 아트웍스 스코틀랜드(ArtWorks Scotland)가 개발. 툴킷에 포함 된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은 아티스트, 전문가, 참여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음
- 2) Creative Learning and Young People :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예술, 스크린 및 창조 산업과의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함

○ 주요 프로그램

- 1) ArtWorks Scotland : 참여 환경에서 작업하는 아티스트를 위한 전국적인 전문 개발 프로그램(교육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의 전문적 개발) 영국 전역의 5개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Paul Hamlyn Foundation의 특별 기획인 ArtWorks의 한 부분이며, Creative Scotland의 편당을 받고 있는 파트너십
- 2) CashBack for Creativity : 스코틀랜드 정부의 CashBack for Communitie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범죄 수익 법 (Proceeds of Crime Act)을 통해 4500 만 파운드 이상을 회수하여 스코틀랜드 젊은이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지역 사회에 재투자
- 3) Creative Learning Plan : 2013년 9월 스코틀랜드의 다양한 학습 파트너와 함께 개발 된 Creative Learning Plan을 출판. 이 문서는 스코틀랜드의 창의적 학습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파트너에게 계획을 제공하기 위해 Creative Scotland의 비전, 목표 및 작업 흐름을 포함
- 4) Creative Learning Review : 2016~17년 동안 창조적 학습(creative learning)에 대한 검토를 수행. 창의적인 학습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Creative Scotland는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하여 자금 모금 조직의 모든 작업과 작업 전반에 걸쳐 효과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뷰. Creative Scotland의 향후 5 년간이 지역에서의 작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담고 있음
- 5) Creative Learning Networks : 젊은이들이 최상의 창조적인 학습 경험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Education Scotland와 Creative Scotland는 스코틀랜드의 지역 당국을 지원하여 크리에이티브 학습 네트워크 (CLN)를 개발
- 6) Time to Shine (National Youth Arts Strategy) : 스코틀랜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과 창의력을 통해 반영하고 성취 할 수 있도록 비전과 주요 권장 사항을 제시
- 7) The Creativity Portal : Education Scotland와 Creative Scotland 간의 파트너십으로 개발되어 교육자가 창의력을 자신의 실천의 핵심에 놓을 수 있는 협업 환경을 조성
- 8) Youth Employment Programme : 2012년부터 Creative & Cultural Skills, Creative Skillset, Young Scot, SCVO, Prince 's Trust 등 여러 파트너와 함께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
- 9) Youth Music Initiative : 청소년을 위한 고품질 음악 제작 기회를 창출하고 청소년 음악 분야의 발전을 지원

IV. CLA (문화 학습 연합)

- 기관명 : Cultural Learning Alliance
- 기관소개
 - 12,000여 명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다양한 종류의 예술, 문화교육, 청년, 교육 및 학습 관련 개인 및 단체
 - 예술, 문화, 창의, 교육, 청년, 교육 분야 기관과 개인이 모인 연합체로 (8,920명, 3,171개 기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미 있는 양질의 문화적 경험을 중요시함. 특정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공공기관, 자선사업가,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의 통솔기구
 - 로드 퍼트남이 의장, 현재 리지 크럼프와 샘 캐언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
- 기관 철학 및 운영목적
 - 모든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의미 있는 문화예술 경험을 중요시하면서, 다양한 문화 교육 장르를 포함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예술교육을 추구함
 - 운영그룹은 계간별로 회의를 통해서 연합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과업을 감독하며, 자문위원회는 전문성과 전략을 제공하며 문화 학습 연합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고자 함
 - 문화예술관계자, 교육전문가, 학교 등이 회원. 인간이 존재하는데 중요(essential part)한 문화예술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life-enhancing)주어 아이들에게 기쁨, 참여, 자기표현, 삶에서 꼭 필요한 힘(essential skills into children's lives)을 길러주고자 함
- 주요 프로젝트 및 연구
 - 1) Imagine Nation(2017): the value of cultural learning
 - 목표 : 어린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기회를 확보하는 예술(The Arts empower children and improve life chances)
 - 배경 : 2011년에 발간한 「Imagine Nation: the case for cultural learning」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문화예술교육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가꾸고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함(how studying arts and culture changes and shapes the live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이후 기존 교육시스템을 넘어 문화 학습(cultural learning) 가치의 중요성을 담은 신규 보고서 「ImagineNation: the value of cultural learning」 발간
 - 연구내용 :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통계, 사실, 인용문 및 증거를 수록하고 있음.

- 주요 키워드 정리

- 예술의 사회적 가치(The social value of the arts) : Ideas, Value, Empowerment, Participation, Happiness, partnership, Tolerance, Collaboration, Celebration, Cohesion.
- 예술의 교육적 가치(The educational value of the arts) : Knowledge, Skills, Creativity, Resilience, Potential, Teachers, Artists, Parents, Careers, Communities.
- 예술의 경제적 가치(The economic value of the arts) : Invention, Ingenuity, Talent, Enjoyment, Employment, Quality, Originality, Growth, Innovation, Imagination.
- 예술의 개인적 가치(The personal value of the arts) : Empathy, Exploration, Co-operation, Expression, Experience, Opportunity, Agency, Confidence, Meaning, Mem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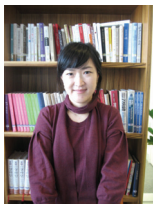
V. Plymouth Creative Arts School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 기관명 : 플리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스쿨(Plymouth School of Creative Arts)
- 설립 목표 및 배경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는 플리머스 예술대학(Plymouth College of Art)이 후원하는 학교. 2013년 9월에 초등학교 단계를 시작했으며, 2013년 9월에 중학교 단계를 시작함.
 - 학교의 예술과 창의력이 훼손되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학문적으로 성취하고자 함.
 - 모든 과목의 성취도 향상, 창조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의 역할의 중요성. 이 두 측면에서 모두 성과를 이루고 있음.
 - 창조적인 예술을 교과 커리큘럼에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우수성을 개발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 가치 및 비전 : 'Creating Individuals, Making Futures'
 - 개인적, 사회적 가치, 정체성, 문화, 공동체, 복지 및 번영에 대한 창의성의 역할을 중요시함. Plymouth College of Art의 핵심 가치를 공유
 - 각 개인의 발전, 변화 및 성취를 위해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
 - 학교를 혁신을 위한 실험실, 더 나아가 새로운 사고를 위해 지역 사회 역시 실험실로 간주
 - 상호 파트너십을 존중
 -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 사회,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배우는 상호 문화적 차원의 참여 장려

-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실행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최고 수준의 교육적 성취를 목표로 함

[부록 4]

함께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양대학교 교수는 평가를 통해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평가적

질문이 비판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판적 평가 및 평가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평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적 사고, 평가로 읽는 사회문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평가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2013~2015년까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효과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효과를 특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중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지표를 구축하였다.



서공주

대구광역시교육연구원 보원 연구사는 2015년까지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연극, 뮤지컬 등 문화예술적

요소를 영어 수업과 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6년에는 대구지역 고교유형다양화의 효과, 2017년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구교육 실태연구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2018년에는 학교예술교육 실태 분석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의전담 교수는 변화하는 예술지형을 리드해나갈 미래의 예술가들을 가르치기 위해

고심하는 한편,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현대무용단의 교육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활동하며 어린이, 청소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무용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였다.



류해석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 장학사는 대학 수학 과정에서 연극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느껴,

초등학교 재직 시 학생들에게 사물놀이, 한국화 등을 지도하였다. 또한,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 씨앗학교 등의 사업을 담당하면서 예술로 학생들의 참다운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예술을 통한 학교혁신의 씨앗을 심고자 하였다.

현재, 예술이 도구교과가 아닌, 학생의 생각과 삶에 대한 성찰에 주안점을 둔 ‘생각하는 예술(Thinking-Art)’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생각을 디자인 하고 삶을 성찰하며 만들어가는 예술교육을 위해 예술 기반 교육과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보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영국과 한국의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국가별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황지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과 행정, 프로그램 개발 등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의미 있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과 초기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까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연구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연구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최근 ‘문화공간에서 확장적 의미의 예

술교육 실천과 새로운 시도’ 그리고 ‘아티스트와 에듀케이터의 역할과 역량 개발’에 관심을 두고 활동 하고 있다.



안나 커틀러

(Anna Cutler)

테이트(Tate)의 러닝(Learning) 디렉터는 지난 30년간 문화교육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극단 연출 및

제작뿐만 아니라 대학 강의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근본적으로는 ‘학습(learning)’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활동 내에서의 다양한 교육 사업과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Values-led practices)에 대한 신념과 예술을 통한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예술 및 교육 네트워크에 자문을 제공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활발히 기고활동을 하고 있다.



캐시 그라함

(Cathy Graham)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 음악 디렉터이다. 지속적으로 음악활동을 해왔으며, 2006년부터

영국 전역과 전 세계의 이해와 신뢰 관계를 위한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데이브 스트러드윅 (Dave Strudwick)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Plymouth School of
Creative Arts) 창립자이
자 교장이다.

문화예술이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발전, 복지와 번영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모든 어린이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원칙하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삶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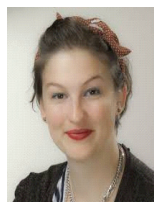
조안 파르(Joan Parr)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Creative Scotland)의 창
의 학습(Creative
Learning) 총괄로서 사
회 전체와 그 구성원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보다 충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알리는 일에 열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조안은 현재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에서 교육의 중심에 문화예술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창의 학습 계획(Creative Learning plan), 청년음악 창작지원(Youth Music Initiative), 참여 예술 활동을 펼치는 예술가 지원사업(ArtWorks Scotland), 문화예술계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Cashback for Creativity), 청소년 예술 활성화 전략(Time to Shine)수립

등에서 총괄을 맡고 있다.



리지 크럼프 (Lizzie Crump)

문화학습연합회(Cultural
Learning Alliance,
CLA) 디렉터로서 지방
정부 뿐만 아니라 잉글

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학교 파트너십 프로젝트 자문위원(현 영국 교육부 사업) 및 다양한 연구와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영국 사회 내 문화 활동의 역할을 강화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국의 예술가들과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what Next' 라는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마크 론데스버러 (Mark Londesborough)

왕립예술협회(RSA) 창
의 학습부문 부총괄로서
RSA의 창의학습 분야

내 연구 및 실행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창의학습이 교육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는 3개년 프로젝트인 'Learning About Culture' 를 총괄하고 있다.

다양한 극단에서 매니저로 경험을 쌓았으며, 영국의 Geese극단과 국립극단(National Theatre)등에서 근무하였음. Tricycle극단에서 창의학습 디렉터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Phkama라는 청소년 예술 단체의 이사 및 RSA학교인

Whitley Academy의 운영위원이다.



로드 스킵
(Rod Skipp)

리버풀 필하모닉 예술
감독으로서 지역사회교
육 사업인 인 하모니
리버풀(In Harmony

Liverpool)을 이끌고 있다.

첼리스트로 활동함과 동시에 2016년 9
월부터 리버풀 필하모닉 청소년 아카데
미 오케스트라 및 리버풀 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고 있다.



스티브 모핏
(Steve Moffitt)

뉴 다 이 렉 션 (New
Direction) 대표(CEO)로
서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잉글랜드 정부의

핵심 문화예술교육사업이었던 크리에이
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s)의
런던 사업을 진행 등 25년간 예술, 교
육, 지역사회 분야에서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런던의
젊은이들과 도시의 창의적, 문화적 자원
을 연결하는 핵심 전략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파트너
와 실행을 하고 있다.

■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영국문화원이 주최하는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한국 내 영국의 해)는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는 예술가들과 관객 개발에 초점을 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역동적인 창의경제에 필수적인 다섯 가지 주제인 1)도시, 2)디지털 기술을 통한 변화와 혁신, 3)다양성과 통합, 4)창의기업가 정신, 5)창의교육을 주제로 영국의 혁신성과 탁월함을 한국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양국 예술과 예술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고 경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창조적인 작업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영국문화원이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 · 창의교육’을 중심으로 양국의 전문가 간 교류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영국 양국의 ‘문화예술교육 · 창의교육’ 관련 전문가 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발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영국 사례조사 보고서

발행인

양현미

발행일

2018.1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예술기반본부장 홍유진

정책연구팀 박진아

정책연구팀 이상희

등록

KACES-1740-R012

문의

Tel.(02)6209-5900

E-mail. contact@arte.or.kr

www.arte.or.kr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